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8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12 · 12 및 5 · 18사건과 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검찰의 중형이 구형됐다. 여타 이 사건 관련 14명의 피의자에게도 역시 무거운 형이 구형됐다. 군사반란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짓밟은 소수 정치군인의 배신행위에 대한 국민의 추상 같은 정치의 결의를 그대로 반영한 구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졌다. 그러나 부처님 인과법을 믿는 우리로서는 표면적으로는 5개월여 걸린 재판이지만, 16년여 전의 업으로 인한 그 인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된다. 업과 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5 · 6공 재판과 업

남을 때리면 얻어맞고, 원한 살 짓을 하면 원한을 사게 되고, 남을 욕하면 욕을 먹고, 성을 내면 남도 내게 성을 내리라.

〈법구경〉

온갖 중생은 제 번뇌로 지어진 업에 의해, 그 몸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하나하나 제 몸과 사는 세계와 수용해 지나는 것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업을 짓혀놓고 다른 무엇이 사는 세계와 수용해 지나는 것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업을 짓혀놓고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화엄경〉

온갖 중생이 받는 고락의 과보 모두가 다 현세의 업 때문인 것은 아니며, 그 원인이 과거세에도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서 인(因)을 짓지 않는다면, 미래에 받아야할 과(果)도 없을 것이다.

〈열반경〉

선업이 있으면, 그 자체에 갖추어진 힘 때문에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 국왕의 권력에는 못미친다.

〈대장엄경론〉

범부들은 세간법에 얽매여 이것을 실재하는 듯 생각해서, 눈에 띄는 대경(對境)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 불선(不善)을 저지르게 되는바, 이 불선 탓으로 고취(苦趣)에 떨어지는 것이다.

〈화엄경〉

온갖 중생은 다 번뇌를 따라 과보를 얻는다. 번뇌란 소위 악(惡)을 이름인데, 번뇌의 더러움을 따라 다시 생기는 번뇌 또한 악인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인으로서의 번뇌요 하나는 과로서의 번뇌인바, 인이 악한 까닭에 과가 악하고, 과가 악한 까닭에 인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반경〉

선악의 과보는 함께 서로 좇아와서 소리가 산울림을 일으키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이 능히 면할 사람이 없으며, 죄사슬과 같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솔히 악업을 지어 큰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니건자경〉

석굴암 · 팔만대장경등 세계문화유산

정부 인터넷홍보 '무관심'

유네스코 정기 모니터링보고 준비 전무

해인사팔만대장경과 관고, 석굴암, 종묘등 작년12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활동과 관리업무가 매우 소홀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등록 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o.caltech.edu/~salmon/world.heritage.html)에는 한국의 유산 3건의 명칭만 올라 있을뿐 사진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유산의 소유국이 보내주는 사진과 안내문을 그대로 등재해 주는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까지 지정된 세계유산 총 4백 69건을 국가 및 지정연도별로 정리해 놓고 사진과 안내문등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유산을 비롯 지난해 지정된 27건의 유산만 하더라도 15건의 유산에 대한 추가정보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추가정보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의 담당기관인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추가 정보제공의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혀 무관심의 정도를 드러냈다. 이같은 실정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마찬가지여서 관계자들은 "그런 추가정보서비스 기능이 있는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5월 세계유산 전산화기금 10만불을 유네스코에 기부했던 사실에 비추어 대단히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 스님은 "한국의 유물이 세계유산이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으나 인터넷상의 홍보 미약은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등록유산의 과학적 관리와 이상유무 파악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보고 시한이 9월 1일 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업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는 지난 2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모니터링 보고를 요청 받았으나 아직 문화재관리국과 구체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보고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는 등록유산의 보전상태에 대한 문화재 전문가의 과학적인 조사결과등을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올림픽 불자선수 환영 16일 조계사서 법회

제26회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10위에 오르는데 공헌을 한 불자선수들을 격려하는 애틀란타 불자선수 초청법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오는 16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14면〉

이번 행사는 스포츠정신을 불심으로 이룩한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축하 법회와 다과회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 50명대학 가능

교육부, 수도권 설립 허용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도 학부과장이 없는 대학원대학과 입학정원 50명이하의 초미니대학 설립을 가능토록 한 시행규칙을 마련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학설립을 철저히 규제해 온 수도권지역에 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권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서울인접시 · 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안에서는 입학정원 50명이하의 소규모 대학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군법사 없는곳 재가포교사 파견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등 하반기사업 발표

포교사단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조계종포교원의 하반기 주요종책으로 진행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3일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포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포교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이 배출한 포교사는 3천2백여명에 이르나 활동이 거의 없거나 교구본사와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 포교지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포교원은 포교사들을 지역단위로 포교사단으로 재편성하고 교구본사 포교국과 연계해 지역포교 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교구본사에 상임포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종법으로 정하는 한편 활동비 지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직능별 포교사 모임을 결성하여 분야별 포교활동 추진, 군법사 부재지역에 재가포교사 파견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이밖에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포교관련 종법 및 규정의 제 · 개정 △신도교육 체계확립과 불교교양대학 관리강화 △관람료사찰 및 국립공원 무료입장 △각종 포교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8 · 15 남북공동 법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회장 도안)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은 오는 15일 LA관음사와 북한에서 남북불교도 우호진작을 위한 '남북불교 8 · 15법회'를 동시에 봉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11일 조불련이 광불협 미주본부를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불교도선언문' 채택 및 남북불교 8 · 15 남북동시 개최 제의에 따라 남북공동법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가 지난 6~9일까지 열린 제1회 연합캠프에 참여한 전국의 3천여 청소년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밝은 세상, 청소년세상, 부처님세상'이 되기를 서원하며 힘찬 첫 출발을 했다.(관련기사 14면)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 월서스님


◇ 윤용숙씨

동참해주신 분 △월서 조계종초 심호계원장: (3구좌) △지완 성심사스님: 천안여고(1구좌) △승현 대원사스님: 진도여고(1구좌)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법동종합복지관(20구좌) △임조형 본사 제주지사장: 제주상고(2구좌) △박혜란: 감룡여고(1구좌) △임두식: 울산 중앙고(1구좌) △박용숙: 경남여중 · 고(2구좌)

〈8월8일 현재 총 410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22-1560 3
광복 51주년 특집 6 · 7면
산문밖의 선 올림픽 2관왕 김경욱 5면
사찰환경권 보장 법으로 15면
각종단 한일교류 활발 14면



원바·디를 기억하십니까?

30年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洋藥品의 원바·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日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원바·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효능 · 효과: 피로회복, 간기능 보조 및 개선
용법 · 용량: 1일1병1~2회
医藥品

일양약품

사 설

대학생 포교 새지평 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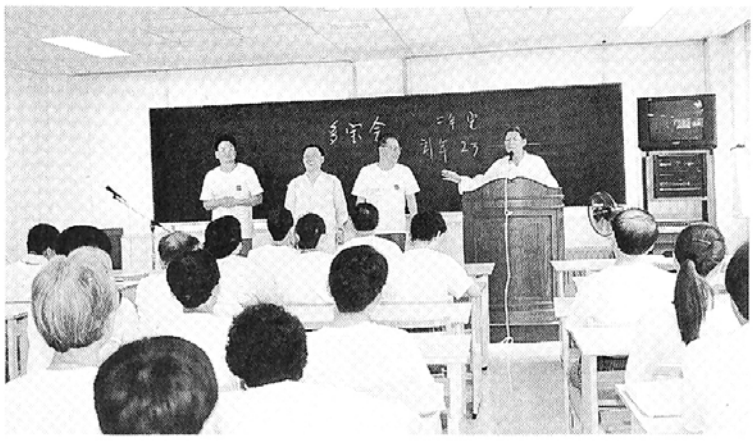
불교에 몸담고 있는 대학생들이 우려할 정도로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 즉 대학생 불자들 가운데 불교신행을 위한 단체활동을 하는 학생수가 줄고 있다는 소리다. 지난 3월 대불련총동문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6학년도 신입생만하더라도 충남권 일대 대학별로 보면 열명이 채 안되는 숫자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안팎의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밖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의 즉물성이다. 현실적 추구의 노골성과 이기적 욕망의 긍정이라는 현대산업사회의 원리가 불교에는 치명적 코드로 기능하고 있다.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이기가 아닌 자비, 욕망이 아닌 절제를 원리로 하고 있는 가르침이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사태는 오히려 거꾸로다. 구원과 초월에의 종교적 열망은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무시하고 억압할수록 그에 대한 실존적 정신분석적 반발은 더욱 심해진다. 우리 사회의 일부 종교의 광신적 행태가 바로 그같은 극명한 예이다. 소외되고 왜곡된 인간본연의 종교적 에너지를 올바르게 표출하고 유도할 수 있는 종교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교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

요컨대 밖의 사회적 여건은 불교가 미래의 종교적 열망을 이끌기 위한 더 없는 호기일 수도 있다. 관건은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할 불교 내부의 자기역량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엄격한 자기반성을 필요로 한다. 불교는 그 심정적 동조자들간의 사교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대중을 이끌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생 포교가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력에 맞는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가시적 대상인 사찰이 비의(秘儀)의 수행처소로 닫혀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절간이 감싸고 있는 풍부한 상징적 종교적 의미를 읽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한다.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건축양식의 기원과 발전에서 수많은 불보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음에도 결과적으로 스스로 탐색하는 만큼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고백한다. 그만큼 사찰은 알려져 있지 않다.

헐기방장한 대학생들은 학회는 찾지 않아도 관광차 혹은 휴식차 산은 찾는다. 그리고 산에는 어김없이 절간이 있다. 사찰은 일부러 포교를 위해 찾아갈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을 계몽하고 이끌어야 한다. 이 시대에 예비지식인들을 교화시키지 못하면 불교는 그 생생한 활력의 기반을 잃는다. 제대로 된 인문적 소개서 몇권이면 대학생 불자들의 갈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깊이있고 충실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교와 연관된 각 부면의 다양한 스칼라쉽이 총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을 조직하고 또 미래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길러야 한다. 종단의 재원도 당연히 이런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불교의 미래는 미래 불교를 담당할 대학생 불자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그들이 있어야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혹은 민주주의를 믿거나 자유주의를 믿거나 혹은 다른 이데올로기에 젖은 사람들과 적극적 논의를 펼칠 수 있고, 합리적 설득을 통해 불교적 삶의 의미와 종교적 진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다.



◇ 대한불교진흥원이 주최한 첫 다보수련원연수회에서 전국 37개 신행단체장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현실을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괴산=정성운 기자〉

열린마당

'신행단체 나아갈 방향'
다보수련원 개원토론회 지상중계

신행단체 지도자연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다보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신행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북한 및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 인터넷 활용과 국제포교를 신행활동의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재가불교운동 상호협력 기본틀 논의

다보토론회 의의
37개 신행단체 지도자 67명 한자리에

대한불교진흥원이 주최한 불교신행단체지도자연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렸다. 다보수련원 개관기념 첫 행사로 열린 이 연수에는 37개 단체대표 67명이 참가, 조석예불과 108참회의식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나의 제언'(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부처님 당시 수행법의 실체'(김정빈·작가) '대승불교의 요체'(권기종·동국대교수)의 강의와 '신행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회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키 위한 신행단체들의 고민을 토로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신행단체 지도자의 도덕성을 제1의 덕목으로 꼽았으며, 청정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단위단체별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통일과 세계화에 대비한 신행·포교활동을 위해 북한 및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 인터넷의 활용과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포교를 한국불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행단체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의 현실을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산발적 단체별로 이뤄져왔던 재가불교운동의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신행단체지도자연수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현 사무국장은 "한국불교의 가장 큰 맹점은 수행에 소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보수련원을 도량으로 삼아 근본불교수행법과 대승불교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행단체지도자연수 참석자들은 신행단체 지도자들의 협의기구인 '다보회'(회장 김덕수)를 결성, 년 1회 이상 연수회 개최와 신행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운〉

해외포교사 양성 필요

◆김덕수(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92년 미국 국방성 군종감이 미군 가운데 불교신자가 3.7%에 이르나 이들의 신앙생활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며 한국의 근승법사 파견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군법사도 부족했지만 강시사단장이 개신교 장로여서 끝내 파견하지 못했다.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국적인 불교 알리기

◆허윤근(충남대교수)=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닥칠지도 모른다. 북한이 개방될 때 교단과 신행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국제포교는 외국현지의 포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우리 것을 보고 싶어한다. 불교는 우리문화의 중심을 이루는데 체계적인 설명과 포교로 이끌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신행단체의 특화된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시공을 초월해 사는 세상이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대승불교 수련법을 알려주면 외국인들은 한국과 한국불교에 대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제기구참여 급선무

◆이상대(대불청 부산지구회장)=UN에서는 원불교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원불교가 UN 산하단체인 국제종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한 스님을 한국의 대표적인 스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리고 민간외교의 한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역량은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

해외동포가 5백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재일동포, 중국 연변, 사할린 지역의 교포 포교는 통일과도 직결된다. 또 우리나라 불교서적의 외국어 번역 출판도 가능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외국인포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5계 생활화 '나로부터'

◆김희욱(삼보법회 기획이사)=재가불교운동의 이념과 방향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넓게는 나라안으로 확산된다.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청정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실천지침으로 밝힌 △아침예불을 올리고 독경 참선 등 수행을 한다 △술 담배 고기를 삼가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말을 삼가고 화를 내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등 청정5계의 생활화를 제안한다. 불자라면 최소한 1주일에 하루는 청정5계를 지켜야 한다.

삶의질 높이는 신행을

◆안수복(전 봉은사신도회장)=동체대비라는 가르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은 불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다. 지금도 각 신행단체는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특히 지역사회로 관심을 돌려 어려운 이웃 뿐만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운동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재가불자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오계지키기를 각 신행단체마다 중요한 운동으로 펼쳐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가치관의 혼돈된 시대에 매우 시급한 사회적 요청이다.

유관협의체구성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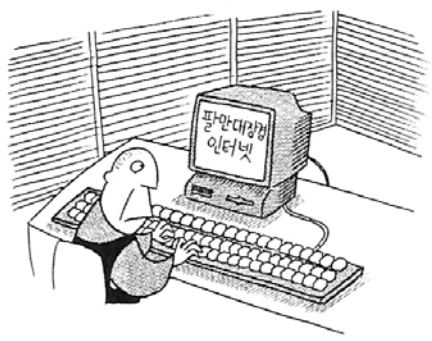
◆양재국(BBS교통통신원불자회장)=최근에 교계에서도 각종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연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슨 무슨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힘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화된 분야의 모임이 필요하다. 운전기사불자회도 전국 주요 도시마다 조직되어 있다. 서로간의 경험을 나누어 지역사회의 실정과 자기단체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인터넷활용 해외포교

◆오근오(한마음선원청년회장)=국제포교는 타종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에 놓여있다.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통신망인 부다피아와 교수불자연합회가 함께 불교에 대한 내용을 풍부히 하고 있다. 각 단체간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정보를 다양하게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교는 부다피아가 최선의 방법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우리 세계문화유산 안뜨네"

목어

금메달과 '일념삼천'

'일념삼천(一念三千)'이라는 말이 있다.

범부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리는 한 생각 속에는 우주의 온갖 사상(事象)이 원융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좀더 쉽게 풀이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 곳에라도 통한다는 말이다.

일념삼천은 중국의 천태지의 대사(天台智顗:538~597)가 깨달은 독특한 가르침이다.

일념이란 상념의 바늘이고 삼천이란 무한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념삼천은 우주를 넘나들 수 있는 마음의 무한성을 일러준다.

이번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영광의 얼굴뒤에는 금보다 소중한 어머니들의 불심이 있었다. 그 모정 불심이야말로 일념삼천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양궁에서 2관왕이 된 김경욱선수의 어머니 길옥분보살은 자신이 한마음선원에서 공부했듯 딸에게도 "주인공에 맡기고 놓아라"고 일러줬다. 그리고 딸이 이역만리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불심을 과녁의 중심에다 놓았다. 그때 경기장 아나운서는 '퍼펙트 골드'를 외쳤다. 어머니는 감사의 합장을 했다.

레슬링의 심권호선수, 유도 전기영선수, 여자유도 조민선선수, 여자양궁 단체전의 윤혜영선수의 어머니도 다를바 없었다. "불안하거든 법당을 찾거나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러 마음을 일념으로 모두어라." 그 말은 아들·딸에 대한 주문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들도 그러했다. 새벽불공, 108배, 염불 그리고는 염주를 든채 아들·딸과 함께 경기에 임했다. 간절한 그 마음의 파장은 경기장에 그대로 전해졌다. 뱃속에서 10개월간 함께 호흡했듯 어머니의 불심은 경기하는 아들·딸과 한마음이 되었다.

비록 은메달에 머물었지만 이봉주의 마라톤은 그의 어머니 공옥희보살과 더불어 온국민이 일념삼천의 염력을 보낸 드라마였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보여준 모정불심의 일념삼천 가르침을 깊이 새기자. 그러면 작은일에서부터 민족통일이라는 큰일까지 못이룰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할 수 있는 일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려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역신히 한다.

협찬 흥국사 주지 화범
TEL.(0346)65-8010

한·중·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연꽃향기 누리가득히



여의도가 부처님의 큰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민족정신에 큰 뿌리로 자리해 온 불교문화!
큰 잔치-불교문화대제전에서 그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행사내용

문화관 (불교 문화와 역사 체험의 장)		생활관 (실생활의 관심으로 접근할수 있는 실용의 장)		이벤트 (불교의식 예술 문화행사)
역사관	한 중 일 삼국의 불교문화 각 분야의 전시	섬유산업관	섬유 가공분야 섬유 소재분야	•종단의 날 •사경 철인법회 •법신 지도 법회 •이산 저녁예불 •명산제 •재한 외국인 불자 초청법회 •불교 합창단 합창제 •한국 불교 신법 무술 공연 •노인 위안잔치 •남사당패 공연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마당 •BBS 공개방송 •btn 공개방송 •읽고 참가로는 윤익회 •한방 진료센타 운영 •불화그리기 •연등 만들기 •청소년 백일장 •5분 생활법문
현대미술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 미술인들의 초대전	농수산물관	각지방 특산품 전시 판매	
종단관	각 종단의 역사 현황 자료 전시	일반산업관	식품 및 건강산업관 / 식품관련분야 건강기구관련분야	
영상관	불교영화 btn제작프로그램 상영		레저 스포츠 용품관 / 스포츠 관련용품 레저용품	
공예품관	다양한 불교공예품 전시		자동차관 / R V차량관 액세서리	
사찰음식전시관	사찰고유의 전래음식을 전시			

•생활관 입주업체를 모집 합니다 관심 있으신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명
한·중·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 9월 14일(토)

•장 소
여의도광장

•주 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 관
불교TV, 경성기획

불교문화대제전 추진위원회
Tel:(02)3270-3349/50

현재 사찰환경이 훼손되고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의 모든사찰이 내·외적으로 침해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불사라는 미명아래 전통가람의 형태가 바뀌기 일쑤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외부요인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한 피해다. 대부분 개발은 대규모로 진행되고 한번 삽질이 시작되면 집요하게 펼쳐져 사찰의 제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사찰환경 훼손위기 현장 진단

최근 이러한 개발이 두드러진 것은 환경이 강조되면서 비교적 환경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찰소유의 토지가 각광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발에 의한 사찰환경 훼손은 사찰과 무관한 대규모 군중을 모으게 되어 계속적인 환경파괴가 자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사찰의 존립터전을 위협할 뿐아니라 한국불교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수 있어 이에대한 전불교도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의부 요인에 의한 사찰훼손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락시설 개발 △대형건물 건립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설을 들수 있다. 그 현장을 들여다 본다.



"환경수호" 최근 환경이 강조되면서 비교적 환경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찰 소유의 토지가 개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찰환경권' 보호를 위해 사부대중은 물론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개발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진은 범어사 입구에 건립중인 아파트 공사 저지에 나선 정관스님(당시 범어사 주지)의 침묵시위 모습.

'개발우선' 정책에 수행도량 '몸살'

선암사 경내지 아파트부지 강제수용
가야산 중턱에 골프장·위락시설 추진
심복사인근 산업 폐기물 매립장 계획

위락시설 개발 대표적인 곳이 해인사이다. 해인사가 자리한 가야산의 중턱에 48만평규모의 골프장과 1빠만평 규모의 위락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해인골프장은 91년부터 개발계획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가 "경북도의 허가과정은 적법하나 환경에 대한 국민정서의 함양이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승인취소를 제기하면서 골프장건설저지 운동이 본격화 됐다. 현재 해인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해 해인총림,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에서 강력대응하고 있다.

해인골프장건설은 법보종찰 해인사의 경관과 사격 침해가 우려되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과 장경각(국보 제52호)이 골프장개발에 따른 온도 습도 풍향의 변화와 골프장에 뿌려지는 농약분말로 훼손의 위기에 처해있다.

사찰주변의 위락시설개발은 이미 통도사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일주문앞에 '통도환타지아'라는 대규모 놀이시설이 들어서 전통사찰의 사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대형건물 건설 가장 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찰환경훼손으로 일주문 코앞에 고층아파트건립을 들수 있다.

경기 남양주 봉영사는 입구에 건설예정인 19층높이의 아파트 건립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아파트건립 불가'를 통보하자 건설사측이 "문화재와 1백m 이상 떨어져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건설사측이 주장하는 법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 등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백m 이내의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은 1백m 규정은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피해가 예상되면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부산 선암사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주택공사가 선암사 경내지를 강제수용해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선암사는 '전통사찰 선암사 도량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건립을 위해 종교용지를 강제수용한 처사는 있을수 없는일이다"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건물 건립은 서울 봉은사에서도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이 '전통사찰 근처에 고층빌딩 건축시 사찰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설을 중단하는 판례를 남겼다.

공공시설 사찰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공공시설, 쓰레기폐기장등 다양한 형태로 사찰환경이 훼손되고있다.

서울 화계사와 수원 청련암이 사찰입구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사찰수행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수원 봉령사의 경우 사찰토지 5만5천평이 공설운동장건설용지로 수용되어 대규모운동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봉령사는 비구니강원이 있어 공설운동장건립에 따른 수행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

평택 심복사는 사찰반경 2백m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찰과 주민이 대책수립에 나섰으며 여천 흥국사가 공단에서 배출한 각종 공해물질로 폐사가 우려되는등 사찰환경 훼손은 전국 사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준엽 기자

농지가 대지로 변경 납세액 54억

절땅 팔아 세금내는 범어사 속사정
경외지 8천여평 매각 결정…토지관리 소홀 비판 여론

조계종 범어사가 체납된 토지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총무원에 요청한 '경외지 매각'이 이미 7월 18일 승인(재처 제1178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지매각 승인은 8월 초까지만해도 총무원관계자들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발뺌하던 항목이다. 범어사 토지매각이 주목을 받는 것은 토지가 8천5백여평에 이르는 대규모로 대부분 부산 도심지의 노른자위에 위치해있어 매각대금이 엄청나기 때문. 그러나 '세금납부를 위해 사찰토지를 매각해야하는가'하는 한계상황속에 총무원의 처리여부에 따라 현 조계종의 부동산정책을 엿볼수 있어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이다.

범어사측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종토세 8억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6억원등 총 54억원이 체납되었다"며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경외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범어사의 토지관련 세금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조계종 소속 사찰에 부과된 택지초과금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택지초과금이란 대지가 2백평이상일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범어사의 경우 부산시가 거대화되면서 농지였던 경외지가 수익성높은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 매년 12억원에 이르는 택지초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어사측은 "수익성없이 세금만 부과하는 대지를 매각해 체납세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교계에서는 활용성높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매각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범어사 대중과 이를 승인한 현 집행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토지와 관련 어떤 명분으로든 매각이후 종단재산이 유실됐다는 평가는 내외부적으로 숱하게 지적돼왔던 사안이다. 범어사 또한 사찰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인예로 과거 전임 소임자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되찾는 과정에서 '대지따로 건물주 따로'가 되어 일방적으로 범어사가 세금만 내는 토지가 허다하다. 또한 점유권과 소유권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도 있다. 심지어 세금이 부과되고 난뒤에 사찰토지를 되찾는등 토지관리상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총무원은 범어사 토지매각을 승인하면서 '토지처분금중 세금납부분을 제외한 20%를 종단목적사업 대토기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액 대토'토록 했다. 또한 필지별로 매각때는 총무원에서 실무자가 참관해 토지매각 절차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매각승인이 난 토지중에는 지목이 대지뿐 아니라 나대지 유휴지등이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토지매각과정에서 빚어질지도 모르는 잡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엽〉

시론

힘차되 무례하지 말라

장발 단속에 걸려 명동 파출소에서 강제로 머리카락 잘리는 수모를 당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세대에 관한 글을 써야 하다니.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나의 장발을 단속하던 세대와, 내가 지금부터 글로 써야하는 세대 한 가운데에 정확하게 위치한다. 나 또한 내 아들의, 치렁치렁하도록 길러 앞가리마를 탄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가?

다리 긴 아들의 앉음새

고등학교 졸업반인 아들은 키가 186센티, 몸무게는 88킬로그램 정도가 된다. 먹는 것을 보면 쇠고기 두근 정도는 한 자리에서 먹어치운다. 먹거리가 달라지면 체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내 아들은 키가 나보다 10센티 가량 큰 셈이나, 체형이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서양 체형이어서 다리가 유난히 길다. 체형이 달라지면 앉음새도 달라진다. 이렇게 긴 다리로는 책상 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어른들로부터 앉음새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꾸중을 듣고는 한다. 이게 공정한 일인가?



이 윤 기
〈소설가·번역가〉

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당당한 태도와 엄장한 몸피를 보면서 우리 조상이 일본인을 '왜놈'이라고 불렀던 까닭을 비로소 이해한다. 어깨 힘이 쭉 빠진 채로 전후좌우를 핼금거리는 일본 총각들, 웃을 때마다 뻐드렁니와 시커먼 잇몸 드러내는 무다리 일본 처녀들에 견주면 우리 총각들은 얼마나 늠름하고 훤출하며 우리 처녀들은 또 얼마나 당차고 아름다운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짊어지우는 과소비 혐의에 대해 내게는 할말이 있다. 젊은이들 먹고 마시는 태도나 씀씀이가 만만치 않은 것을 두고 많은 어른들은 당신네들의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심하게 여겨마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50, 60대에 이른 분들의 청소년 시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백달러를 넘지 못했다. 지금도 그런가? 국민소득에 거품이 섞여있기는 하겠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만달러를 넘었다고 공표한 시대 아닌가? 내가 보기에, 이 시대 젊은이들 몸피는 짜장면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 요구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기성세대가 가져왔던, 필경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에 지나지 못한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워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피는 늙은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섭섭한 일이겠으나, 새 세대에 살아가야할 세상은 훨씬 넓은 세상일 터이므로.

일본의 거리에서 유럽의 거리에서, 북미 대륙의 거리에서 한국 학생들끼리 나누는 한국어 듣게 되는 것은 이제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니다. 한국 학생에게는 한가지 특징이 있다.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당당하다는 것이다. 맹렬한 에너지의 진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토종 외국어를 말하는 인력이 형편없이 모자란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바로 그 입으로,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 토종 외국어를 공부하는 조기 유학생들을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가? 어쩌라는 말인가? 탈선하는 조기 유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선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는 무균실이 아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내보내어 키워야 한다. 그리고 탈선 범위를 정하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세대의 잣대만으로 신세대를 재어 선악을 관단하고 죄를 주어서는 안된다. 신세대 '악'은 구세대 '선'의 한 상태일 때가 종종 있다.

지금 이 시점의 기성세대가 한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투자액이다. 기성세대는 부모들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고도 이른바 '일만달러' 시대를 일구었다. 지금은 어떤가?

신세대 새로워야 한다

상당수의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국가가 신세대에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공부하는 환경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신세대는 먹거리에서부터 문화환경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투자를 받으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 나는 구세대가 신세대가 획득한 이러한 강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신세대가 위로는 무례하고 아래로는 잔인해 보인다는 것이다. 희망하기로는, 당당하게 힘차게 살되, 무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신세대에게 이 한마디를 당부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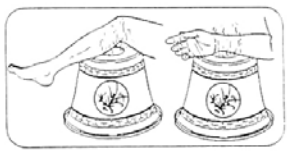
"뷔고로소 마 논 트로포(힘차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의 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요법이 한곳에서 동시에 발휘되도록 집약시켜 이를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쬐므로서 질환의 치료 예방 효과가 크고 빠르게 개발된 가정용 좌욕 씸질 요법기 입니다.

당신의 건강진단서,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자궁에 가끔씩 기분 나쁜 증상이 일어난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의 요법으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섬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군살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진,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이상의 열거한 질병이 있는 분은 일단은 무조건 전통쑥좌욕기를 10~15일만 사용해 보십시요 그리고 그 진가를 맘껏해 주십시요 어느분이고 이 좌욕기로 내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그 효능을 확실하게 느끼실 것이며 설령 좌욕기 가격이 몇 백만원이라고 해도 아마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도 일주일에 2~3번씩 가끔 사용하시면 또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을 시집보낼때 혼수감 속에 좌욕기는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으로 꼭 넣어주십시요 자궁을 냉한 것으로 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 청결하게 소독해주고 살균시켜주어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했을때 유산되는 일이 드물며, 집에서 산모 스스로 산후조리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 징
1. 좌대: 열을 받으면 황토기운을 받을 수 있는 황토 분청자기로 만들었습니다.
2. 내열탕기: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는 바이오 세라믹 도질로 만들었습니다.
3. 강화약쑥 티백100봉지(100일분)와 100% 순정품 황토가루 100일분이 포함되었습니다.
4.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누구나 손쉽게 30분~1시간 이상 좌욕할 수 있어 편리하며,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전가족이 공동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5.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 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6. 보급가격이 효능 및 효율성, 품질의 우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전통쑥좌욕기는 "움직이는 황토방"이며 "이동식쑥찜질방"입니다.



치료원리
•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삼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서 피부모공과 내분비선공을 열어 피부호흡 및 호르몬분비를 촉진함으로서 대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좋게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원균을 살균시켜 질병을 치유시킵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지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꼽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에좋 등



전국지회모집 (미개설지역)
전국 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9-1906/야간(0342)706-3060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3층3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각광스님) 부설: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 (051)864-3740

◎가능한 가까운 지회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단, 미개설 지역의 경우 지회가 개설될 때까지만 구입신청을 받습니다.

서울(02) 강남:553-0261~2 서초:598-4080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도봉:942-643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칠곡:323-2598 남구:474-2828 **광주(062)** 동구:228-8544 **대전(042)** 중구:222-4936 **전주(0652)** 덕진구:75-6733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경북지역** 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경기지역**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광주지회:(0347)65-1047

법회 안내

경국사(02)914-544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매월 3일(음) 오전10시30분
참회법회 10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대성사(02)583-1475

정광재일 1일(음) 오전9시30분
광명법회 3일(음) 오전9시30분
약사재일 8일(음) 오전9시30분
무량수재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9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9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9시30분
거사림법회 매주 화 오후7시30분
8·15기념 특별천도법회 8월15일 오전10시~오후5시

청계사 포교원(0343)95-6311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화엄산림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전10시
경전공부 매주 목 오전10시
꽃꽂이강좌 매주 금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선덕사(062)263-466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7시

자재암포교원(0351)865-51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미타사(02)662-4736

신중기도 매월1~3일(음)오전10시
미륵기도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철야참선 매주 토 저녁10시

법안정사(02)646-4975

어린이 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토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덕암사(02)451-4597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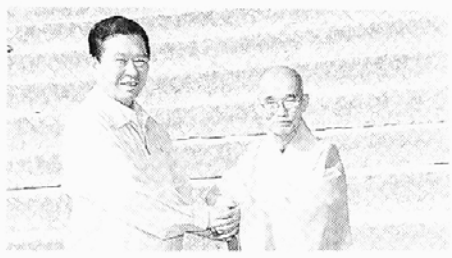
상원사(0374)32-666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22일 오전11시

백련암(0418)545-2921

정기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DJ 해인사 참배 '골프장반대' 서명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일행이 지난 7월31일 해인사를 방문, 대적광전을 참배하고 해인골프장건설저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국민회의 소속 불자회인 새연등회(회장 박상규의원) 13명 회원을 비롯 20여명의 국민회의 일행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을 둘러본 후 방장 혜암스님을 친견했다(사진). 혜암스님은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전생에 4지(四地)보살의 덕을 쌓아야 한다"며 책임자가 지켜야할 3대덕목으로 △번거로운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 말것(事煩莫懼) △일없기를 바라지 말것(無事莫尋)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는 가릴 것(是非莫變) 등을 강조했다. 법문을 경청한 김대중총재는 저서 〈나의 길 나의 사상〉을 증정했고, 해인사측에서는 대장경 모조경판을 선물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가산학보' 제5호 발간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최근 '지공 중국행적고' 등 11편의 논문과 2편의 금석문 번역문을 담은 〈가산학보〉제5호를 발간했다.

승가원 이사장 피선

지하스님(중앙승가대학 학장)은 지난 7월2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태령 영가 천혼법회

성우스님(파계사 주지)은 지난 7월28일부터 30일까지 파계사에서 '태령영가 천혼법회'를 봉행했다.

대승경전 산림법회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지난 6일 대승경전 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산림법회는 11월13일까지 1백일간 진행된다.

팔공산 복지장사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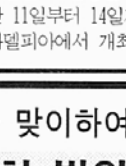


홍선스님(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장)은 지난 8일부터 50일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대구 팔공산 복지장사 대웅전터의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칠석맞이 문화공연 개최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은 오는 20일 저녁7시~9시 불자가수를 초청, 칠월칠석을 맞이 청소년문화공연을 개최한다.

통일발원 위령 천도법회



도문스님(대성사 조실)은 광복절을 맞아 15일 우면산 대성사에서 남북통일성취 발원일체영가 위령천도법회를 봉행한다. 박회장은 이외에도 평화사, 정각사, 반야사, 서미사등에서 불자들을 위한 강연을 했다.

해군장병에 법문 수계



원행스님(동해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은 지난 7월26일 해군제1전투단을 방문, 해군장병 6백명을 대상으로 동해항 부두 통해관에서 종교강연 후 위문격려하고 수계식을 봉행했다.

섬진강서 통일기원 유등제

철형스님(쌍계사 주지)은 오는 30일 섬진강일대에서 남북통일기원유등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유등제에는 경남도지사를 비롯 지역불자 3천여명이 동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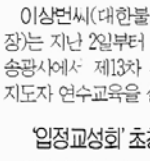
시낭송테이프 무료보시

묵연스님(대구불교산악회 지도법사)은 시집 〈너를 위하여 나를 버리듯〉에 실린 시와 최근시를 직접 낭송한 시낭송집 테이프를 펴내고 이를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053)959-5453

美 보험학회 세미나 참가

서돈각씨(한국보험학회고문,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보험학회(ARIA) 세미나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방송등 한달간 미국서 전법



박완일씨(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는 지난 7월7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미국 LA와 시애틀 지역에서 방송·전법강연을 하고 지난 7일 귀국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재미동포 자녀교육, 자기를 다스리는법등을 원효·보조사상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 녹음은 8월 한달간 매주 토·일요일 '명사·명강의' 시간에 방송된다. 박회장은 이외에도 평화사, 정각사, 반야사, 서미사등에서 불자들을 위한 강연을 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기획실장



권오성씨(육해공군 예비역군법사회 회장)는 지난 1일자로 양천구민 체육센터(관장 상룡·승가사 주지)의 기획실장을 맡았다.

강릉병원 개원진료



주영운씨(아산재단 이사장)는 지난 7월30일 강릉병원을 개원, 진료에 들어갔다.

전국청년지도자 연수교육

이상번씨(대한불교청년회 회장)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주 송광사에서 제13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입정교성회' 초청 토론회

최준식원장(종교문화연구원·이대교수)은 지난 11일~16일까지 일본의 재가불자단체인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를 초청, 경주·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정파초월 불교계 권익보호 앞장"

제15대 국회정각회장 서석재 의원

해인골프장 저지…불교 종합병원 설립지원

"정각회는 불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어느 신행단체보다도 깨달음의 사회화를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정각회라고 봅니다. 불교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정각회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15대 국회 정각회장에 취임한 서석재의원(신한국당)은 지난 7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교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각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히고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서의원은 "해인골프장 문제는 환경보호와 세계문화유산 보호차원에서 우리 불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불교계 뿐만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인골프장과 관련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가 앞장서서 환경보호운동을 범불교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부탁을 덧붙였다.

또 "아직도 불교관계법에는 불교계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계에서 사례를 모아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관에서 지시하는 시대가 아닌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문민시대입니다. 불자들이 건의를 하시면 저와 정각회원들은 소속정당을 떠나 불교계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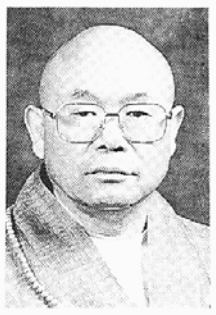
92년 대선공약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불교종합병원 설립지원은 현재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석재회장은 불교계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정각회장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정화·애국정신 계승해야죠"

선학원 중앙선원장 성해스님



"선학원 중앙선원은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구국의 현장이며 첫 비구대회를 개최한 정화의 산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는 정화기념법회를 마련해 선학원 설립정신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8일 신임 (재)선학원 정오 직장인 선방·백일고승법회등 운영

중앙선원장으로 취임하는 성해스님은 "잊혀져 가는 선각자들의 뜻을 계승하는데 주력해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중앙선원이 도심속에 자리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도심포교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장인 선방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일마다 선지식을 초청해 대법회를 개최하겠다"는 성해스님은 "중앙선원이 제역할을 다할 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종단과 선학원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해스님은 1957년 일도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계를 받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해오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선서화전을 열었다. 또 88년 뉴욕 불국사를 창건하는등 해외포교에도 앞장서왔다.

이준엽 기자



군승단 하계수련회 및 정기총회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지난 7월29일~31일 다보수련원에서 하계수련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군승단과 한상길법사(호국원광사 주지)는 월주스님으로부터 대통령예배사건의 신속한 대응 및 성공적인 독도수호법회개최 등의 공로로 단체및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군승단은 수해피해사찰인 15사단 천불사에 2백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아시아 청소년축제 개막식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지난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김집)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청소년축제'에 참석,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청소년단체 지도자와 중국 일본 인도 등 10개국에서 내한한 전통문화공연단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게시판

▲연구과정생 모집=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원장 지관스님)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지고 불교학 및 인접학문을 연구하는 자를 대상으로 8월24일까지 연구과정생을 모집한다. (02)765-9602~3

▲청교련 간부수련회=청교련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는 오는 17일, 18일 양일간 구파발 흥국사에서 간부수련회를 개최한다. (02)735-8165

▲어린이 유적답사=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오는 18일 화엄사, 연곡사 등 지리산 일대로 제16차 어린이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062)263-4660

▲연꽃합창단원 모집=한국여성불자회(회장 김묘주)는 9월 10일까지 연꽃합창단원을 모집한다. (02)738-5586

▲노래가사바꾸기 경연대회=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96노래가사바꾸기 경연대회가 오는 17일 오후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된다. (02)734-8179

▲청소년열린학교=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열린 여름학교를 개설한다. 농촌봉사활동, 예법교실, 요가 및 참선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051)361-2063

▲성지순례=대구 영남불교대학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053)474-8228

▲청소년역사기행=청소년문서포교회(발행인 이지호)는 월간 '꿈꾸는 새벽하늘'창간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오전7시 화순운주사 및 담양 소쇄원으로 청소년역사기행을 떠난다. (053)755-9614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남북 통일 성취 발원으로 일체 영가 위령천도 법회 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전통사찰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수도발원 교화 도량에서 행효 출가자 불심 도문 복위 선망 자모 원불교 법호 인타원(印陀圓), 원불교 법명 성자(聖子), 불교법명 대성자(大聖子) 경주유인(慶州孺人) 최사달(崔四達) 영가 백일제를 맞이하여 천도법회 봉행과 동시에 일체 유주무주 유형무형 유연무연 위국절사 충의장졸 기한동뇌 침혼체백 일일일야 만사만생 만반고통 수고함령등중 일체 각 열위 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한 공덕으로 일체 영가가 천도 되어 지이다.
그리고 남북통일 성취와 동서평화 달성과 일체중생 성불인연 되어 지이다.

1. 천도법회 일시·장소

일 시 : 대각응세 병자년 서기 1996년 8월 15일 광복절 오전 10시에서 ~ 오후 5시까지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수월 도량

2. 법회진행 순서

1. 도량석
2. 불전 천수경 봉독
3. 영가 관욕
4. 영가 천도 법어
5. 상단 불공
6. 중단 퇴공
7. 영가 위령 설법
8. 하단 영가 시식
9. 불설관무량수불경 독경
10. 장엄 염불
11. 봉송 회향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 총무 각천 청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총무 무진 합장

연락처 : 전화 583-1475 FAX 583-2700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4년	• 주간부 • 야간부 • 통신부	• 고등학교및 통등이상 학력자	• 조계종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유아포교과)	2년	• 주간부 • 통신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중국어과	2년	• 주간부 • 야간부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불교미술과	2년	• 주간부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 주간부 • 통신부	• 반명함판 사진 5매	

2. 학 교 연 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조계사앞 삼보원 732-9904
대전 문경서적 252-8558 부산 불교서적 전시관 632-7393
대구 제일서점 424-0801 마산 학문당 46-292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02)511-2026~8, 511-1080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 511-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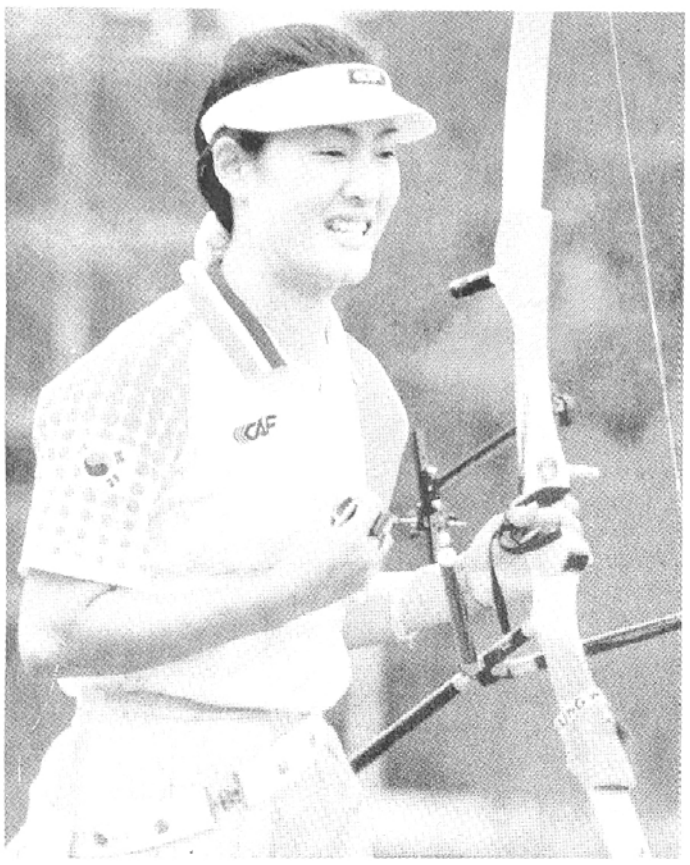
삼 화 불 교 대 학

무심공부로 얻어낸 '金열매'

산문밖의 禪

"시위를 당기는 순간 생각의 자리는 텅비고 내가 화살이 되어 타켓을 향해 날아가요"

올림픽 양궁2관왕 김경욱 선수



◇ 애틀랜타올림픽 양궁 결승서 퍼펙트 골드를 두발이나 명중시킨 김경욱이 마지막 화살을 쏜 뒤 우승이 확정되자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퍼펙트골드 환호에 '조용한 미소'로 기쁨 표현
"주인공에 맡겨라" 당부하신 어머니말씀 '큰힘'

"금메달을 향해 쏴라."

지난 1일 애틀랜타 스톤마운틴 공원 양궁 경기장에서나 TV를 통해 경기를 지켜보는 한국인은 모두 김경욱(26 현대정공소속)에게 이같은 주문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화살이 타켓의 황금색 부분에 꽂힐 때마다 환호했다. 기어이 그녀는 '신궁'의 경지를 봄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올림픽 일정 중반 이후 6일간의 공백을 낀 금메달 소식이어서 그녀의 승전보는 정말 금쪽같이 귀한 것이기도 했다.

양궁용어에는 없던 '퍼펙트 골드'란 신조어를 금메달과 함께 목에 건 김경욱은 이틀후 단체전에서도 '신궁'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이번 올림픽의 양궁2관왕 스타로 세계인에게 기억되게 됐다. 일만분의 일이라는 확률의 퍼펙트 골드를 결승전 한 게임에서 두번이나 쏴 보였던 그녀는 호들갑스레 기뻐하지 않았다. '조용한 미소'로 다음에 쏠 화살을 준비할 뿐.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들이 생각났어요. 서너번의 좌절이 오늘의 금메달을 안겨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서너번은 해봐야 제대로 되는가봐요."

어쩌면 그녀는 사대(射臺)에 서서 70미터 밖의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려 보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88년 선발전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한 탈락, 89년의 어깨근육 파열로 인한 좌절, 92년 바르셀로나 선발전의 탈락등 불행했던 과거를 향해 40파운드의 강궁 시위를 당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 화살은 실의의 세월을 헤치고 그녀가 일어섰듯 힘차게 바람을 가르고 아픔의 가장 한가운데에 꽂혔다. 그로써 아픔은 완전히 끝났고 사람들이 '퍼펙트 골드'를 환호하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것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김경욱 선수는 기회를 더이상 놓칠 수 없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불안해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안으로 삭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여러번의 좌절이 가져다 준 교훈이었다. 그녀는 "장애로 함께위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대회를 치뤘다"는 말도 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 아버지에게 금메달을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지워진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니 걱정 말아라. 네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네가 최고의 선수란 믿음을 놓지 말아라"시던 어머니의 부탁도 언제나 귓전에 맴돌았다고 말했다.

결승전에서는 긴장되어 감독에게 "팔을 좀 꼬집어 달라"고 주문해야 했던 김선수,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노련미를 가졌기에 그녀는 세계최고의 자리를 차지 했던 것이다.

70미터 건너편의 과녁, 직경 1미터 22센치의 둥근 표적지를 사대에서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무 생각이 안듭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긴장도 되고 최선을 다 하자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시위를 당기는 순간은 오직 타켓만 보일뿐 생각의 자리는 텅비게 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의식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화살을 쏘고 그 순간 나도 화살이 되어 타켓까지 날아 갑니다."

화살이 표적지에 꽂히는 순간에야 다시 사대에 선 자신으로 돌아 온다는 김선수는 이번 개인전에서 결승전보다 힘겨웠던 16강전, 8강전을 모두 '안정된 마음의 유지'로 극복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어떤 경기보다 양궁은 순간의 마음에 승패가 달린 것이거든요. 시위에서 화살이 떠나기 직전의 마음이 편하면 명중률이 좋은 거고 잡다한 생각에 휘말리면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맙니다."

김선수는 다른 선수에 비해 강도높은 훈련을 하면서도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최고의 훈련으로 생각해 왔다.

입문 17년째인 올해 세계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선수는 지난 6일 오후 김포공항에 마중나온 어머니와 포옹을 한채 "이 금메달은 엄마 아빠의 것"이라는 효성도 보였다.

임연태 기자

유전병 치료하면 업보도 녹나요

문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인자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유전적 불치병에 대한 치료법도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유전병이란 과거의 오랜 인과에서 비롯된 업보일터인데 과학의 힘으로 업보를 녹이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21세기에 가면 과학이 대부분의 병을 퇴치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나아가서는 유전공학적 조작에 의해 새로운 생물종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합니다.

〈허완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답 아무리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물질을 찾아낸 것이지 난치병이 어떻게, 왜 그 사람에게 생겼느냐는 연관성을 아는것은 아닙니다.

설사 새로운 물질이나 새 방법을 찾아내서 치료의 길을 열었다고해도 인과의 씨앗은 썩지않으니 다른 형태로, 다시말해 다른 모양의 질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과학은 결코 그런 일들의 대안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지금같은 과학이 아닌 진짜과학—나는 그것을 심성과학이라고 합니다만 마음도리로 들어가는 과학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과학이 병의 원인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온 줄도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야 어찌 그 뿌리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아다시피 모든 생명체는 진화를 합니다. 가령 미생물이나 곤충들이 농약에 대해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새로운 변종이 나오는 것만해도 그 나름으로는 진화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농약을 써서 죽게 되니까 아하! 저것에 대처하지 못하면 살수가 없겠구나 해서 다른 형태로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과학으로 따라잡겠다는 것은 숨바꼭질과 같은 셈이지요. 자주 들기다보면 더 은밀한 장소를 찾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도리를 공부하고 '나부터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를 녹이는 길은 오직 마음공부 밖에 없습니다. 마음공부를 통해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게되면 무슨 백혈병이니 골수암이니 하는 것은 다 이름일 분입니다.

진언은 무엇이며 효력은…

문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경에도 진언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라니경 같은 것은 주력이 있다하여 예불중에 빼어놓지 않고 외우는데 진언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째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진종운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답 아, 누가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효력이 있다고 정해놓은 것 뿐이지요.

진언이라면 쉽게말해 진짜 말, 참말인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참된 길은 마음 길 뿐이요 참된 말은 마음 밝히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좋은데로 보내달라고 빌고, 고통에 빠졌으니 건져달라고 빌고, 명이 짧다고하니 명좀 길게 해달라고 빈다면 그게 진짜 말이겠습니까?

진언은 진언이라는 이름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은밀한 내용이 담겨서 주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밝히는 말이기에 참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언을 외더라도 노예로서의 진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지장보살을 찾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닥쳤으니 관세음보살한테 진언을 해야한다, 병이 났으니 약사여래 찾는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칠성도 찾아야하고 용왕도 찾아야하고…, 우리들 삶의 용도에 따라 온통 이것 찾고 저것 찾는 노예같은 신세가 되고 말게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살림살이 모든 것은 마음 한군데서 나오고 들어갑니다.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잘났든 못났든 나의 근본 뿌리에서 나오고 뿌리로 돌아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디다 어떻게 빕니까? 누가 갖다 준 것이라면 도로 가져가라든가, 더 달라든가 할텐데 제속에서 나온 것이니 제 스스로 꾸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자기를 요렇게 만들어 놓았고 자기를 이리저리 끌고다니는 그놈—체가 없어서 붙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놈하고 해결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명이 짧다고 하면 짧은대로 그놈—나는 주인공이라 합니다만 그놈보고 '짧게 만든 것도 너,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너이니 네가 알아서하라.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맡겨놓으라는 말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너 되게하는 것도 너'라고 안으로 돌려 놓는다면 그 말이 일종의 진언인 것입니다.

밖으로 떨어지는 진언은 진언이 아닙니다. 진짜는 안으로 돌려 놓는게 진언인데 그러면 왜 효력이 있다하느냐? 내 마음은 우주법계에 가득한 일체제불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있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부 통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효력이 있다고하면 금새 잘되는 것만 연상하시겠지만 되는 것도 법이요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너 기준이지 법계의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으로 돌려 놓는것, 그것으로 여법한 것이며 그럴때 진언은 진언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말은 결코 진언이 아닙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혜의 전원주택



주택정면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방150m 예당 저수지 33만평)
- 지목 : 대지 + 전 (76 + 204 = 280평)
- 가옥상태 A급 (정원 잔디 + 조경 + 인공저수지2평)
- (현대식) 돌담집 : 집앞 채전과 차고 있음.
- 집앞에 시원한 광활한 저수지(예산읍에서 15분거리)
- 현재 사람 살고 있음. 최고 A급 전원 주택
- 금액 : 4,800만원

투자할 만한 전원 주택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금액 2,800만원
- 지목 : 대지 + 전(대지164평 + 전218평) 計 382평
-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거리
- 2차선 포장 도로에서 100m 위치
- 집앞에 200m지점 큰 저수지가 있고, 집 뒤에는 산이 있음
- 주위 경관수려, 달래강 근접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 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7시~8시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교 과 목

◆ 1학년 2학기 :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 2학년 2학기 :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Ⅱ
◆ 연구과정 2학기 :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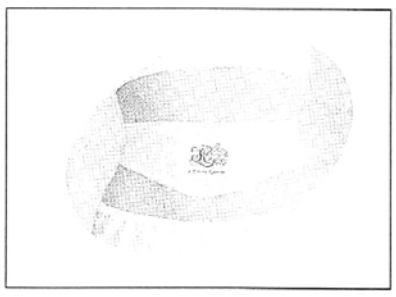
◎ 특전 : 졸업후 1.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2.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3.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랍니다.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외갑상선으그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광복 51주년 특집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는 곧 한일협정 개정안을 만들어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불평등 한일협정 시민단체 개정안 확정

"합방조약 무효…동등관계로"

위안부 배상등 과거사죄 명시돼야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방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질문은 한일간의 관계를 함축하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영화와 대중음악이 공개적·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해야 할 두 나라의 관계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조약으로 일제 침략의 만행을 마무리지은 한일협정의 개정이 바람직한 양국관계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학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은)는 지난 7월 26일 운동본부 결성 1년에 즈음에 '한일협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재일동포법적지위협정' '한일문화재협정' '한일어업협정' 등 4개 부속협정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상범교수(동국대·법학)는 한일협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기본조약을 전면 폐지하고 새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기본조약은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와 일본 사이에 졸속으로 체결된 것으로, 일본의 침략사실과 강압행위가 누락돼 있다"며 기본조약 개정안에는 한국의 주권 침해와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협정의 개정안을 발표한 김대순교수(연세대)는 협정의 명칭에 '반환'의 명쾌한 의사표시가 없는 단순한 문화협정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에는 "과거의 전시(임진왜란) 및 식민통치시대의 문화재반출 행위의 불법성을 천명하고 문화재 반환의 법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는 2만9천여점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다.(94.9 국정감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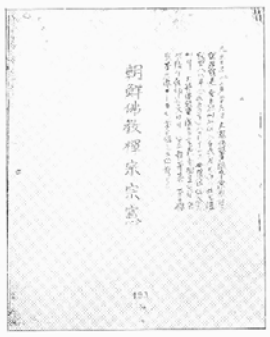
토론에 나선 신용하교수(서울대)는 "한반도 강점과 관련된 기본조약은 당시부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외무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한일 양국정부에 건의하고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조선불교 선종종헌' 61년만에 햇빛

1935년에 제정공포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불교선종종헌〉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문서는 재야불교사학자인 고 이재열씨의 가족이 7년전 동국대 도서관에 기증했던 유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도서출판 민족사가 오는 9월 발간할 예정인 〈한국근대현대불교자료전집(김광식·이철교 공저)〉을 통해 최초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민족사 내달발간 '불교자료전집'에 수록



조선불교선종종헌(이하 '종헌')은 1921년 창설된 선학원이 1934년 12월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그 조직을 전환하고 개최한 전국수좌대회에서, 일제치하에서 피폐해 가던 한국불교의 전통사수와 교단부흥을 목적으로 항일운동 차원에서 제정한 종헌으로서 1934년 12월 30일에 제정통과됐고 이듬해인 1935년 1월5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종헌은 선서문, 종명과 종지, 종정, 전국수좌대회, 종무원, 위원회, 계단, 사찰, 보칙 등 총 18장 102조로 구성되어 전 장을 통해 당시 한국불교계의 현실인식, 항일불교의 정신, 비구승단으로 맥을 이으려하는 정통불교의 수호의지 등을 노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내용으로 종정의 임기를 종신으로 규정했으며 승단은 독신의 남녀스님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철교씨(동국대 경주도서관 열람과장)는 "조선불교선종종헌은 현 조계종 종헌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종헌은 '본종은 신라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되어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선종이라고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부절(綿綿不絶)하여왔음'이라 밝혀 1962년 3월22일 제정된 현 조계종 종헌에 나타난 '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부절한 것이다'와 거의 똑같다.

또한 소의경전 부분에서도 '소의경전은 대장경급조등법어(大藏經及祖燈法語)로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조선불교선종종헌과 현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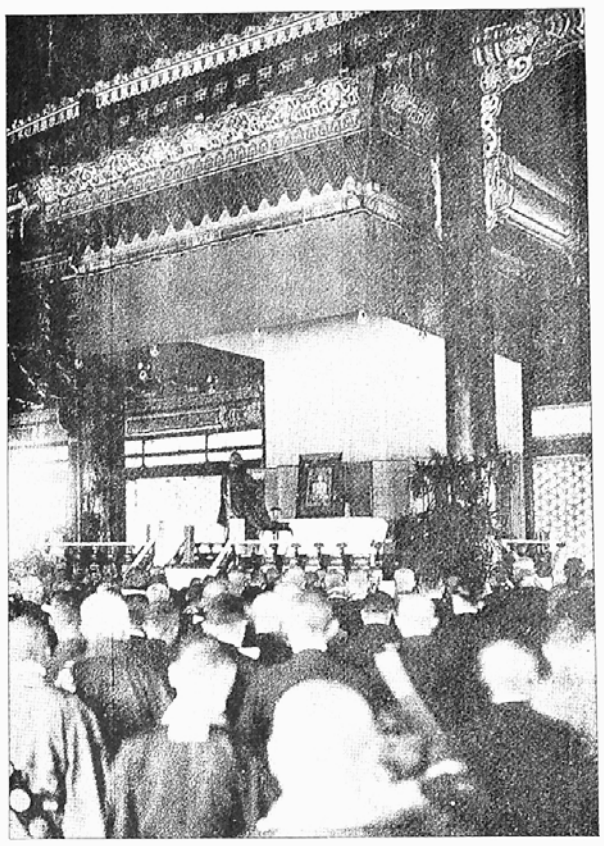
종헌에는 또 종정을 여러명 두어 만공(수석종정), 수월, 혜월, 한암스님 등이 추대되었고, 종무원장에 정운봉, 총무부장에 김적음, 교무부장에 하동산, 재무부장에 김남전 스님 등이 추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이에 동참해 일본의 영향아래 대처승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시 한국불교는 일본 총독부의 사찰령 선포등 많은 변화속에서 조선불교선교양종을 종명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제치하속 대처등으로 문란해 가는 전통불교의 승풍과 정통성을 사수하려는 선방수좌들로 구성된 선학원측 승려들이 정통비구임을 자처하면서 독자적인 선종을 내세우기 위해 조선불교선종종헌을 제정 공포하게 된 것. 당시 이를 위해 어떤 성격의 모임이 개최됐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해지지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선학원 핵심 멤버 중심으로 제정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종헌 자료집의 앞표지에 '1963년 12월26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과장 김규열에게서 입수하였는데 이는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에서 조계종헌을 제정공포한 이후 위작한 것이니 제1조 제2항, 제2조 및 제6조중 특히 제2조는 그 명증이다'는 이재열씨의 필적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 종헌의 제정과정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지금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처 비구간의 갈등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위작에 대한 의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이 '조선불교선종종헌'은 일제시대 불교계가 항일운동의 차원에서 정통성사수를 위해 벌였던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에 공개되는 이 종헌을 다각도로 분석 연구해 그 진의를 밝혀내는 것이 불교계의 남은 과제다.

이은자 기자



근정전 친일법회 일제는 친일파 한국인과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 불교계 일본인들을 앞장세워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한국인들을 순응시키려는 계략으로 1920년대부터 불교외호단체 '조선불교단'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활용, 친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사진은 조선불교단 주최로 1935년 11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조선불교대회 법회 모습. 〈사진제공=동국대 도서관〉

◇1926년 불교계 현황

구분 / 도명	사찰수 (개)	비구수 (명)	비구니수 (명)	신도수 조선인(명)	신도수 일본인(명)	포교소수 (개)	포교사수 (명)
경기	183	960	203	17,275	-	7	8
충북	35	132	53	4,092	-	1	5
충남	102	449	126	4,600	-	1	1
전북	115	207	7	5,939	12	16	22
전남	138	843	85	10,969	35	8	18
경북	195	922	20	40,420	20	18	17
경남	174	1,323	143	61,451	49	18	26
황해	49	270	17	1,708	5	-	-
평남	40	43	3	913	-	4	4
평북	105	116	5	4,229	-	3	4
강원	125	735	78	4,950	20	4	4
함남	79	284	124	10,802	-	2	4
함북	23	40	-	2,664	-	-	-
합계	1,363	6,324	864	170,213	141	82	113

정통불교 사수 항일차원서 제정
종정 '終身' 승단 '독신' 규정 눈길

정신대실상등 8·15특집방송 다채

8·15 광복 51주년을 맞아 불교TV와 불교방송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불교TV △해외특별기획 불교의 땅 히말라야 1,2부(12,13일 낮 12시35분)=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티벳인들의 불교관과 생활상을 칼라차크라법회등을 통해 보여준다.

△달라이라마 특별인터뷰-자비와 화합의 시대로(14일 낮 12시35분)=인도 타보사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통하는 달라이라마를 정우스님(불교TV 전무이사)이 대담자로 나서 티벳독립과 한국불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다.

△8·15특집-다시 이 생명 다하도록(15일 오전 10시15분)='나눔의 집' 정신대 할머니들을 비롯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재조명한다.

△특집 리포트-잃어버린 성보를 찾아서(15일 낮 12시35분)=일제시대때 유출된 문화재의 통계와 행방에 대한 추적을 통한 실태 파악과 특히 여러경로를 통해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바른 보존법에 대해 살펴본다.

BBS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전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

조선불교일람표로 본 교계현황

70년동안 승려수 3배 신도는 40배 증가

'조선불교일람표'는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1928년 3월에 간행한 불교계 현황소개서다. 이 일람표는 1915~1926년까지의 승려 및 신도수등 제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집계하고 있어 당시 불교계 현황을 살피는 데 긴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일람표를 근거로 1985년 인구센서스 결과(통계청)와 비교하면 승려수는 약 3배 사찰수는 약 7배 증가했으며, 신도수는 무려 약 40배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관련도표 참조〉

이 일람표에는 당시 전국 강원현황, 조선불교 경영학교, 조선사찰일람표, 포교당조사표, 사찰승니수 등 불교계의 현황을 수치로 설명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고운사를 비롯 총 15곳에 있었으나 이 가운데 고운사, 건봉사, 석왕사 등 8곳은 현재 이북에 있거나 사찰 소실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또한 당시 각 사찰에서 일제하 민중 계몽의 성격을 띠고 야학의 형태로 개설됐던 조선불교 경영학교도 경남 통도사(보통학교), 함남 석왕사(보통학교), 경북 김용사(지방학림) 등 6곳에서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전한 비움, 찬란한 고요, 절대의 순수와 사랑 앞에서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서른세 해 동안 물만 마시고 산 사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 양애란 이야기

●구술/양애란 · 정리/강정화 ●국판/이백팔십팔쪽/값 육천원



●양애란 선생님은 서른세 해 동안 물만으로 삶을 지탱해 오신 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삶을 사시면서 역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초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열세 살이 되던 해 어느날 갑자기 먹었던 밥을 토해내면서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오던 그이는 잠도 자지 않고 자리에 눕지도 않은 채 무아의 일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삼십대 중반까지 두 다리가 이유없이 썩어 들어갔던 일, 스물네 시간 동안 허가 빠져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되풀이 했던 일, 열 손가락 밑에서 고름이 쏟아져내렸던 일 등 질병과는 무관한 특별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물만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이는 자신이 겪은 남다른 고통의 의미, 삶의 가치 등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져 사십구일간 잠조차 생략하고 기도를 하면서 세 번이나 현몽한 관세음보살님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이가 다른 이의 전생을 읽는다거나 남의 지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하는 등의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입니다. 그이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담금질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렵게 찾아온 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로 돌아가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이의 특별한 삶의 이력이나 남다른 능력등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저는 그이의 곁에서 한달 내내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찬 그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강정화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87-3번지 두원빌딩 6층 ●대표전화 403-4471/팩스 403-1208 (주)한문화

광복 51주년 특집

사찰조경에 식민잔재 '그대로'

日 수종 삼나무·편백등 식재…둥근돌 층계도 왜색

아직도 국내사찰에 일본식 조경이 비판없이 시공되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재부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이경재교수는 "자연생태계와 건축물이 만나는 공간을 추이대(推移帶)라 하며 이곳에는 각종 곤충과 양서·파충류가 서식하여 수도하는 스님들이 곤경에 빠질수 있다"며 "전통적으로 사찰내부에는 큰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으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일본 전통수종인 삼나무 편백 금송 등을 무질서하게 식재하여 우리 전통사찰인지 일본절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교수는 "일본인들의 의도를 알지못한 채 아직도 일본수종을 사찰경내에서 기념식수하거나 사찰조경을 한다며 무질서하게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다"며 "전통사찰 경관복원차원에서 신중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경내에 나무가 있으면 곤충이 서식하게 되어 스님들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법당앞에 나무를 심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때 일본인에 의해 사찰조경이 변형되었다.

돌쌓기도 전통적인 방식보다 일본식이 더많이 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인 돌쌓기는 큰돌을 겹쳐서 수직이 되도록 하는데 반해 일본식은 둥근돌을 층계를 이루며 쌓으며 돌과 돌사이에 회양목등 작은 나무를 심는다. 이러한 돌쌓기는 일제강점기에 전통돌쌓기의 맥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새로 건립되는 석등 가운데 일본양식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전문가들은 "일본식 조경은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특성이있다"며 일본식 조경의 대표적 피해사찰로 화엄사 일주문, 통도사 부도전, 쌍계사 일주문, 선운사 부도전부근의 편백 삼나무 등을 꼽는다.

이처럼 일본식 조경문화가 아직도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사찰조경연구소 홍광표소장은 "전통사찰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본식 조경은 기존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스님들이 전통적인 사찰조경과 일본식을 구분하는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소장은 "무턱대고 전통만을 따르는 것은 모방에 불과하며 현대에 맞는 사찰조경문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담징이 그린 일본 나라 법륭사 금당의 벽화 '아미타정토'.

법륭사 금당벽화 담징그림

"일본은 다시 인정하라"

1924년 이후 교과서서 삭제

1924년 이후 일본 교과서에는 법륭사 금당벽화를 그린 고구려 화가 담징스님이 한국인이란 사실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1992년 출간된 〈일본어대사전〉도 나라시대의 고승인 행기스님이 백제인 왕인박사의 후손이란 역사적 사실을 기록에서 빠뜨렸듯이<본지 88호 6면 참조> 광복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왜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기박사(작가·62)는 최근의 사료조사 결과, 세계적인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법륭사 '아미타 정토'를 그린 담징스님의 경우 1924년까지는 일본 국민학교 교과서에 "담징이 종이·먹 등을 전해 주고 법륭사 벽화를 그렸다"고 소개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름조차 삭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담징이 고구려인이며 법륭사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이 〈일본사사전〉 〈광사원(廣辭苑)〉 〈일본어대사전〉 등에 대동소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저의가 의도적인 역사 왜곡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교과서를 통해 법륭사 금당벽화의 주인이 담징이란 사실을 상식처럼 알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홍박사는 또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화보로 실린 일본의 국보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이거나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가 만든 것들인데도 '한국'이라는 국적 표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

8·15 기념강연 초록

국민시인 卍海

만해선사의 사상적 실체는 오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상의 민족지향성·민중지향성은 오늘날 우리 역사의 두 바퀴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만해의 여러 모습들, 혁신적 선승이면서 매서운 지조의 독립지사요, 영원불멸한 〈님의 침묵〉을 저술한 시인중 어느것이 가장 만해다운 것인가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의 사상에는 그 모두를 하나로 묶는 축이 놓여 있다. 우리가 만해를 논하고 기리는 참뜻은 그 사상의 원류를 오늘에 계승하여 실천하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해사상의 핵심적 원류는 〈불교유신론〉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의 첫번째 저작이면서 동시에 '불교의 유신은 파괴로부터'라는 과격한 선언으로 더 유명한 이것은 그 사상적 토대가 부정정신과 비판의식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불교대전〉등을 편찬하는 등 불교대중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한일불교동맹조약 체결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 당대에 주목받던 〈유심〉지 발간등의 활동은 모두 〈불교유신론〉의 실천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철저한 부정정신은 이미 그의 불교운동 자체가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으로 꽃을 피운 그의 독립운동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25년 음력 8월29일 새벽 〈님의 침묵〉이 탈고됨으로써 만해선사는 일제치하를 잃어버린 시대, 침묵의 시대로 파악하여 그러한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만남과 광복을 성취한다는 영원한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믿음 그리고 문학적 희망을 시로서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혹독한 궁핍속에서도 전혀 지조를 잃지않고 의연히 살다가신 님의 모습은 그러나 그 인간적 면모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민시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랴.

서구의 여러나라에 다 있는 국민시인 한사람을 우리가 갖게되는 것은 요즘처럼 안과 밖의 거센 시련과 민족주체성이 위기에 봉착한 시대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만해스님을 민족의 시인으로 뜨겁게 가슴에 품고 범국민적으로 기림으로써 그 높은 사상을 생활철학으로 삼는다면 통일의 길도 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재홍〈경희대국문과 교수〉

이 내용은 8월15일 서울 구룡사에서 개최되는 8·15기념 특별강연의 요약이다. 〈편집자〉

나의 수행일기

김백국 〈안달가〉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징을 치며 시작되는 회심곡의 노래자락을 농칠새라 경청하는 사람들, 더러 어깨를 들썩이고 박수를 치며 추임새도 넣어주는 촌로(村老)들은 언제나 징겨웠다. 그런 날이면 스님들도 공부를 슬쩍 밀쳐두고 마당가에 나와서 우리의 공연을 지켜보곤 했었다. 회심곡 한바탕이 끝나고 경기민요나 서도소리 몇꼭지를 부르고 나면 분위기는 그야말로 흥청거리는 잔치판이 되었다. 그 뜬 기분을 탑돌이로 옮겨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원들은 이미 준비해 둔 연등에 불을 밝혀들고 탑을 돌고, 나는 스님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 않고 징을 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탑을 도세 백팔 바퀴 탑을 도세…'를 읊어댔다.

군대서나 쓰는 12볼트짜리 확성기 하나를 의지해 퍼져 나가는 탑돌이 가락은 온 산사를 뒤덮었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절에서 준비한 등을 하나씩 받아들고 단원들의 뒤를 따랐다. 탑도는 원이 점점 커지고 그럴수록 신명은 커져만 갔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공연을 끝내야 하는 것이 언제나 아쉬웠다.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마당을 정리한 후 단원들은 각각 방으로 흩어졌지만 나는 밤늦은 법당으로 갔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공연을 했으니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여쭈어야 하는 것이었다.

벌써 35년이 흘렀다. 20대 후반의 나는 그렇게 전국의 절을 떠돌며 회심곡을 부르고 탑돌이를 하는 일로 살아 보고 싶었다. 단원들도 좋고 공연을 봐주는 촌 사람들의 풋풋한 웃음도 좋았다. 무엇보다 이리저리 절이 있는 곳을 찾아 북통을 메고 다니는 방랑이 좋았다. 나를 보고 역마살이 끼었다거나 떠내기 팔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관 없었다. 무엇보다 그 방랑은 내게 밥을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나는 절밥이 좋았고 절 뒷채 툇마루에서 먹는 국수맛이 좋았다.

원래 나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가난을 면할 길 없이 크다가 목수가 됐었다. 제법 솜씨있다는 소리를 듣는 목수가 됐을 무렵엔 서울로 올라와 남대문 보수작업에도 동참 했었는데 그 길이 내게는 목수를 그만두는 서울행이었다. 김천흥 선생을 만나 탈춤을 배웠고 이은관 선생의 학원을 찾아가 서도소리를 배웠다. 그리고 민속만담이란걸 고안해 소리와 재담을 하다보니 방송국에서 성우로 일하는 기회도 얻었다. 효과음향이 없던 때여서 연속극 같은 것을 녹음하는데 효과음을 넣기도 했다. 입으로 목탁소리도 내고 바람소리 짐승소리도 내며 효과음향을 넣었던 것인데 그중 뻐꾸기 소리를 일품으로 한다하여 아예 이름이 '김뻑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운학스님과 운문 스님을 만난 것이 내게는 절집을 방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들의 권고로 만든 단체가 '불교예술단'이었다. 절에서도 먹을 것이 풍족치 못한 때라 그리 후한 대접이란 기대도 못했다. 그저 쫓겨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는데 거기는 운학스님의 소개서와 공연한 절의 주지스님이 써 주는 소개서가 큰 힘이 되었었다. 낮에 차를 농쳐서 종일을 걸어 밤늦게 도착한 법주사는 평생을 못 잊는다. 자정무렵의 산사에서 스님들이 애호박을 따다 넣고 끓인 국수를 내 주었는데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북통을 등에 지고 걸어걸어 찾아 다녔던 전국의 고찰들. 허기를 감싸쥐고 찾아간 절의 대웅전에서 만나는 부처님들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었다. 불교예술단을 해체하고도 박동진 이은관 장소팔 안비취 등 명인들과 어울려 절을 다니며 공연할 기회는 많았다. 그럴때마다 남몰래 법당에 들어가 나는 그 자비로운 미소를 대하고 기쁨을 얻었다.

소리꾼이란 신분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배고픈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젊은 시절 부러울 것 없이 떠돌며 만난 여러 부처님들의 자애로운 미소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날까지 즐겁게 살아 올 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불교예술단 결성 전국 사찰 공연

"북통들고 찾아간 부처님 언제나 의욕 북돋워"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칠뜻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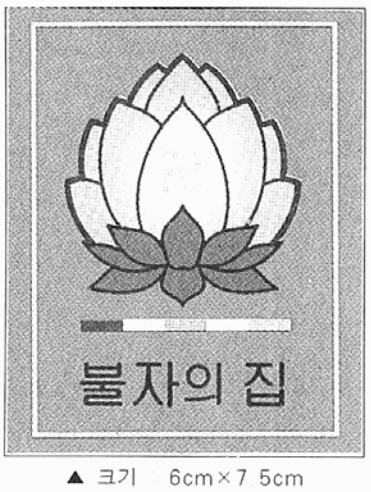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⑧

不是心中着急 就是打妄想
불시심중착급 취시타둔도일
結果成爲 頭年初參 二年老參 三年不參
결과성위 두년초참 이년로참 삼년불참
易的地方是什麼呢
이적지방시십마니
只要具足一個信心 長永心 和無心
지요구족일개신심 장영심 화무심
所謂信心者 第一信我此心 本來是佛
소위신심자 제일신아차심 본래시불
與十方三世諸佛衆生無異
여시방삼세제불중생무이

(또) 마음으로 급하다는 집념이 없어서 눈을 내리깔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니 첫해는 초참이고 2년째는 노참이고 3년째는 참구조차 않는 결과에 이를 뿐이다.

쉬운 자리란 어떤 것인가.

다만 신심 하나 구족함을 요하나니 오래가는 마음이요 고른 무심이다.

이른바 신심이란 첫째 나의 마음이 본래부처라는 시방삼세 제불과 중생이 더불어 둘이 아님을 믿는 것이다.

三生若能不退 佛階決定可期
삼생약능불퇴 불계결정가기

주문도 이와같이 실천하고, 교학도 이와같이 듣고 생각하며 수행하라.

(이상과 같이) 어떤 종류의 법문을 수행해도 다 계로써 근본을 삼는다.

과연 이와같이 지어나갈 수 있다면 장차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산 노사께서 설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법을 수행해 삼생동안 만약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부처자리를 기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第二僧釋迦牟尼佛說的法
제이신석가모니불설적법
法法都可以了生死 成佛道
법법도가이료생사 성불도

또 영가노사 말하기를 만약 망념된 말로 중생을 속이려 든다면

영원히 발설지옥에 떨어져 저 항하사 모래 수만큼의 겁을 보내리라 하였다.

又永嘉老人說 若將妄語誑衆生
우영가로인설 약장망어광중생
永墮拔舌地獄劫
영추발설진사겁

"초발심자가 신심·장영심·무심 갖추면 '염불하는자 누구인가' 보는 것과 같다"

所謂長永心者 就是選定一法 終生行之
소위장영심자 취시선정일법 종생행지
乃至來生又來生 都如此行持
내지래생우래생 도여차행지
參禪定總是如此參去 念佛的總是如此
참선적총시여차참거 념불적총시여차
念去
념거

둘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어느 법이든 법마다 생사를 요달해 성불할 수 있는 도임을 믿는 것이다.

이른바 장영심이란 한 법을 골라 평생을 수행하고 이어 내생에, 다시 그 내생에 이르도록 그 수행법을 간직하는 것이다.

참선을 이와같이 실천해가며 염불도 이와같이 실천하고

持咒的總是如此持去 學教的總是依聞
지주적총시여차지법 학교적총시종문
思修行去
사수행법
任修何種法門 總以成爲根本
임수하종법문 총이계위근본
果能如是做去 將來沒有不成的
과능여시주거 장래몰유불성적
爲山老人說 若有人 能行此法
위산로인설 약유인 능행차법

이른바 무심이란 일체를 놓아버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종일토록 경계를 따라 움직여도 다시는 한점의 분별 집착도 일어나지 않아 그대로 한 무심도인이 되는 것이다.

初發心人 具足了這三心
초발심인 구족료저삼심
若是參禪看話頭 就看念佛是誰
약시참선간화두 취간념불시수
你自己默念 幾聲阿彌陀佛
이자기묵념 기성아미타불
看這念佛的是誰 這一念是從何處起的
간저념불적시수 저일념시종하처기적
當知這一念 不是從我口中起的
당지저일념 불시종아구중기적

초발심자가 이 세가지 마음(신심·장영심·무심)을 고루 갖추면

참선에서 화두를 보는 것이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를 보는것과 같다.

네 스스로 목넘타가 몇번 소리내어 아미타불을 부르고

저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이 한생각이 어느 자리에서 일어났는가를 보라.

마땅히 알지니 이 한 생각은 나의 입속에서 나온것이 아니다.

龍眼

★ 지상법석

"계율 지키는 것은

벽암스님 〈도봉사 주지〉



약력
- 1923년 서울 生
- 38년 서대문 백련사서 치학암스님 은사로 득도.
- 백련사 강원 사집과정 마치고 묘향산 보현사 강원서 대교과 마침.
- 69년 도봉사 창건.
- 태고종 법규위원장, 고시원장 역임.

이 더운 여름날 여기까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법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이 빤합니다. 부처님 만나러 왔다고 하는 이도 있고 불법(佛法)을 배우러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복을 빌러 왔다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닦으러 왔다고 그럴듯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다른 대답은 별로 없어요. 질문이 어리석어 대답도 고만고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 대답이든 다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니 섭섭해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만나건 법을 배우건 복을 빌건 굳이 이 더운날 산중의 절에 와야만 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복이 있고 불법과 마음이 있는데 뭣하러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절에 오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신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주 오셔야 합니다. 오시되 오실때마다 이웃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함께오면 더욱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이유가 아니고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법당이나 구경하고 부처님 앞에 꾸벅꾸벅 절이나 하다가

"생활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불법과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느냐, 뭔가 가슴 가득 기쁨을 담고 가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절에 들어온 것도 법당을 구경 한 것도 부처님앞에 절을 한 것도 나름대로 다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불지를 자처하며 법회에 나온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기왕 법회에 나오셨으니 가슴이 터져나가는 기쁨을 맛 보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기쁨이 다음 법회때까지 살아가는 영양분이 될 것이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의 신행과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 불법의 세계가 어떤 것이라고 단정짓거나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란 쉬운일도 아니고 이 노승의 60년 공부가 그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은 우리의 삶속에서 구해야 하고 거기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화려하고 복잡하고 즐겁고 불쾌한 모습등등이 불법 펼쳐지는 거대한 연극이고 쇼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나가 무엇으로 존재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불법 구하는 일입니다. 삶속에서 우리가 찾을 불법의 근원은 자비입니다. 자비로 살면 불법이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남에게 자비롭고 나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이미 더이상 닦을 것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세상에서 보살과 부처의 행을 한결같이 실행하는데 누가 그를 중생이라 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기에 조금씩 그렇게 사는 방향으로 나가자는것 아닙니까. 자비는 무엇이냐. 얼마전에 겪은 얘기 한 토막 들어 보십시오.

이 법당 아래 내가 기거하는 방의 당호가 뭔지 아십니까. '심심해서(尋心解室)'입니다. 심심해서 그냥 웃자고 지은 이름은 아니고 '마음을 찾는 골짜기의 높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심심하게 앉아 있는데 바깥이 시끌벅적 하더군요. 심심하던차에 밖이 시끄러우니 나가볼 수 밖에요. 저쪽 한켠에 남자 네명이 앉아 밥이다 찌게다 한껏 끓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분명 절 안인데 그래서는 안 될 곳임을 알만한 나이들인데 말입니다. 다가가서 들으니 게중에는 모대학의 교수도 있더군요. 마침 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는 절 안이니 이렇게 음식 끓여 먹으면 안됩니다. 너무 소란을 피워서도 안되고요."

"노인은 누구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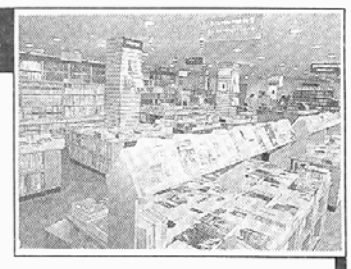
"난 이 절에서 밥 얻어 먹는 사람인데 선생님들 같이 소란피우고 음식해 먹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쫓겨 납니다.그러니 다른 곳으로…"

"여기는 절 아닙니까. 절에서 배고픈 중생이 밥해 먹는다는데 왜 쫓으려 합니까. 절이 자비를 베풀어야지"

대학교수 일행이 자비란 말을 서슴없이 하길래 나는 그들이 앉은 가운데 도사리고 앉았지요.

"자비라고 했나요. 〈법화경〉 25품이 '관세음보살보문품'인데 거기에 '응이집금강신(應以執金剛神)으로 득도자(得道者)는 즉현집금강신(卽現執金剛神)하여 이위설법(而爲說法)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뜻은 금강역사의 무서운 철퇴로 다스려 교화 시킬 사람은 마땅히 금강역사의 철퇴로 법을

불을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지상법석

자신에 대한 자비행”

“나와 남에게 한결같이 자비로우면 누가 그 사람을 중생이라 하겠습니까”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삼십이응신으로 나투어 중생을 제도 하는 것은 중생을 가엾고 어여쁘게 여기는 보살심이 있기 때문이지만 중생이 그에 합당한 모습을 염원하지 않고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맞춰 철퇴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아무나 무조건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라면 이 세상에 무슨 질서가 있고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비가 조건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쓰임이 불법에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해 놓고 자비를 말하며 용서 받으려 한다면 금강역사의 철퇴 밖에 드릴 것이 없잖겠습니까. 더 혼나기 전에 어서 나가시지요.”

그들은 아무소리 못하고 절을 나갔는데 나는 오래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생을 삼가해서 나도 오래 살고 축생미물도 수명을 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계의 두번째는 불투도이고 오복의 두번째는 부(富)입니다. 도둑질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한순간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업장으로 그는 파멸하고 맙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것을 탐내는 마음도 갖지 말고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일지라도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존중해 주고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는 내 노력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노력한 것은 적고 가지려는 욕심은 크다면 세상은 혼란해질 계가 귀해집니다.

다음의 계율은 불망어이고 오복의 네번째는 덕(德)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줄도 압니다. 덕을 채우는 행위 가운데 말을 잘하고 잘 지키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갖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듯이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일 뿐이므로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거짓과 진실은 언제나 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가려진 진실이 후일 언젠가 밝혀지듯 지금은 성공한 거짓말일지라도 반드시 그 허상은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은 하늘이고 거짓은 구름이라고 하면 어떨런지요. 불망어의 계를 잘 지키면 스스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덕성스런 행동을 해도 덕을 갖추지 못합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는 그 사람의 덕이 될 것입니다.

오계의 마지막은 불음주이고 오복의 마지막은 명, 고종명(考終命)이라 합니다. 불음주는 재가불자들에게 매우 곤혹스런 계율이라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안마시고 살 수야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되 약이 되도록 마셔야지 독이 되게 마셔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차원을 넘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에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것이며 마셔야 할 때는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마셔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종명이란 목숨을 다하는 순간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불음주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비명에 목숨을 잃는 사람을 말하지 않더라도 술이 화근이 되어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반목케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헛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술 마시는 일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계율이란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쉽다면 굳이 계율로 삼아 지키라고 강조 할 이유도 없겠지요. 지키기 어려워도 지켜야 하고 그래야 참다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미 삶의 지혜는 솟아납니다. 실천할 수 있을때 실천 함으로 이미 자비로운 불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지계를 물로 불것도 아닙니다. 다섯가지 계를 지키는 마음도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앞에서 했듯이 스스로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비행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안이 법당이고 세상이 도량입니다. 자비심을 갖추고 자비행을 실천하며 이 도량을 청정히 가꾸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도량이야 말로 성불의 도량이니까요. 억지로 계율에 얽매여서도 안되고 솟아 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아 병을 키워서도 안됩니다. 발보살심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일에 자비로워지는 지혜를 얻을 것이니 여여(如如)하게 마음속의 자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불도량…일상에서 부처님 만나세요”

오계와 오복은 상통…흐트러짐 없으면 福저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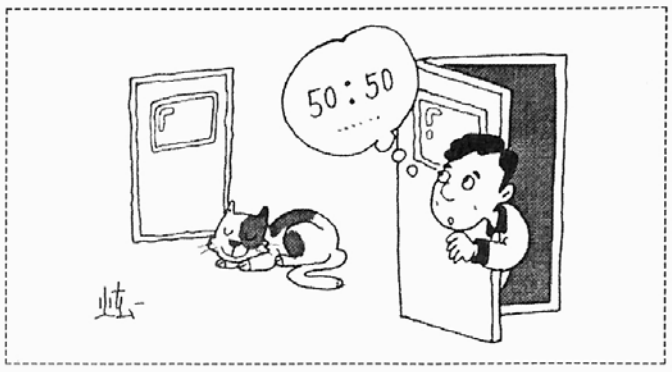
뒤에 들으니 저아래 마을에서 “그 영감이 누구냐”고 물더랍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다”린 대답을 듣고 다음에 만나서는 “스님 너무하셨어요. 진작 주지스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주지 말은 듣고 집지킴이 노인네 말은 안듣는 그 마음은 이미 진리와 거리가 멀구먼”하고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자비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웃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면 남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이 곧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지킬 계가 다섯가지 있음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가지는 동양인이 희구하는 오복(五福)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계의 처음은 불살생이고 오복의 처음은 수(壽)입니다. 오래 살길 바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심입니다. 내가 오래살길 바란다면 다른 생명도 오래 잘 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연법이 그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살생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서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계의 세번째는 불사음이고 오복의 세번째는 귀(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귀하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지지 않는 격조가 있고 함부로 여기지 못할 품위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귀하지 않은 것은 천한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의 생존가치를 경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귀한 존재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귀한 존재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불사음의 계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삿된 생각과 행동은 이웃과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사회는 그 사회마다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 집단마다 독특한 전통과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유별의 정신적 전통은 꾸준히 지켜져 왔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전래가 요즘은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개방화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지켜질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전통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평등이 아닙니다. 개인개인이 귀해질때 사회도 귀해지고 법

> “자비는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 그 쓰임이 불법에 거스름이 없어야 합니다
> 해서는 안될일을 하고 자비구하면
> 금강역사의 철퇴로 다스려야죠”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0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17)

불생불멸의 실상

‘있다-없다’ ‘살았다-죽었다’ 관찰자 시각
깃발이 펄럭이는 원인은 ‘마음의 움직임’

상자속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이 고양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따지거나 상자를 열어서 관찰하면 반드시 죽은 고양이를 보거나 산 고양이를 보게 될 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고양이를 볼 수는 없다. 이 고양이에 관한 문제는 반야심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계속해서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삶과 죽음은 거시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현상이므로 직접 고양이를 갖고 실험하면 언제나 삶과 죽음의 둘 중 하나만 나타난다.

그러나 미시적 세계에 들어가서 실험하면 논리적으로 삶과 죽음이 공존해야만 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 입자-파동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실험이 바로 논리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데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앞문과 뒷문, 꼭 두개의 문을 가진 방(房)이 있고 이방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사람은 앞문으로 들어가거나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둘중 하나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입자(粒子)를 쏘아 방에 들어가게 하더라도 입자는 앞문으로 들어가거나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둘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사람이건 입자이건 하나라면 하나가 동시에 두개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실제로 입자를 쏘아 실험을 해보면 입자는 반드시 앞문이거나 뒷문이거나 둘 중 하나만 통과하지 두개의 문을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통과한다는 법은 없다. 입자하나가 하나의 문만 통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고양이가 삶과 죽음 중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꼭 같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 관심을 돌려 입자가 어느쪽 문을 통과 하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거나 관찰하지 말고 방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관찰해보기로 하자.

방안에 들어온 입자의 경우 앞문이나 뒷문 어느 한쪽으로 들어온 입자의 행동은 두개의 문을 통과해 들어온 입자의 행동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니 입자라면 두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기에 두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파동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입자와 파동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초기의 물리학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런데 관찰 결과는 입자라고 생각하든 파동이라고 생각하든 사람이 관찰하면 두개의 문중 어느 한쪽으로만 들어오고 어느쪽 문으로 오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개의 문으로 들어온 것처럼 행동한다.

빛을 쪼인 경우에 어느 쪽 문으로 들어왔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방안에 들어온 빛은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반복하는 띠를 만드는데 이 띠는 하나의 빛이 두개의 문으로 동시에 들어왔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무늬이다. 빛대신 다른 입자를 써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입자가 앞문으로도 들어오고 뒷문으로도 들어왔다고 해야 설명되는 무늬를 만들다.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 입자가 동시에 두개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입자가 어느쪽 문으로 들어오는지 관찰해보면 입자는 반드시 한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동시에 두개의 문을 지난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확인된 빛이나 입자는 결코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띠를 만들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 오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띠를 만들고 어느쪽으로 오는지 관찰하면 띠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양이에 적용시켜 보면 고양이가 든 상자를 열어보면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법이 없고 열어보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반반씩 섞인 고양이가 상자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양이가 죽었던 살았던 그것은 모두 사람이 창조해서 본 것이다. 그래서 육조 혜능스님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원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실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인데 사람이 갖가지를 지어내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

선종어록한문의 해석법을 새롭게 배운다!
선종어록 해석을 위한 한문법의 체계적 정리!
『무문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중국에서 선종은 당 · 송시대에 그 황금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선어록 대부분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곧 일반적 언어 즉 구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선어록을 해석함에 있어 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잃는다. 철저히 당 · 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한 구어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96 불교서적 종합목록이 나왔습니다. 가까운 불교서점이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秋月龍珉 · 秋月眞人 著/慧 原 譯/신국판 양장/값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우학스님 수필집-
거거는맨날 고기묵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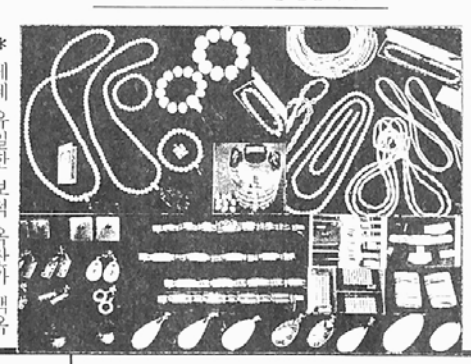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 · 강원 · 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 · 사경및 해설 (금강경 · 천수경 · 반야심경 · 법성게 · 화엄경약찬게 · 예불문 · 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 · 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자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시음해 보십시오
잡으로 신기하게도 잘 듭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본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8월 22일, 29일(木)
일반인을 위한 한방 건강 무료 강좌
“불교와 한의학”
그 종교 醫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적선동주의(Spiritual Sensationalism)를 표방한 명상의학의 한마당!
佛教의 觀心一法(마음을 관하는 한가지 법)!
한의학의 審情浮沈(감정의 뜨고 가라앉음을 살핌)!
항상됨 없음이 불변진리이든 절대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마음의 탄력성을 역설하는 금오선생의 조용한 의식혁명의 외침속에서 자기자신의 영적 치유능력을 찾아 내면세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강의를 들으면서 병을 말끔히……
· 대 상 : 불교와 한의학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 강 사 : 금오(金烏)
· 장 소 : 법련사 2층 불일문화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삼청동 방면 경복궁 정문 건너편, TEL : 02-733-5322, 5377)
· 일 시 : 1996년 8월 22일, 29일 목요일 오후 7 : 00~8 : 30
· 수강료 및 교재 : 무료
· 문 의 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2-1 세광빌딩 9층 도서출판 神農百草 한의원 Tel. (02)736-4644~5 Fax. (02)730-7638
SARI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연합의료봉사단 /舍/岩/針/法/東/醫/社/相/研/究/會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88

꿈속의 그들 ①

천상의 업을 마치고 승냥이가 된 만화는
독풀을 먹은 토끼를 잡아먹고 죽어
양자강 하류 고아출신 소녀뱃속에 들어갔다

병석의 우녀는 지난날의 도반들을 점검하듯 꿈속에서 여러 세상의 그들을 차례로…

조선의 부설거사 역시 처음에는 승려였다가 한 남자와 만나 부부가 되어 서로 높은 경지를 터득하는 수행으로 다하였던 것이다.

인담과 우녀는 부부가 아닌 부부이며 오누이가 아닌 오누이이고 부녀 사이가 아닌 부녀 사이인지 모르게 서로 걸림이 없는 두 사람만의 섬에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달이 뜨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도록 살아 왔다.

심심하기로 말하면 심심하기 짝이 없었고 부부의 금실로 말하면 그것은 부부 이상의 금실이어서 서로 말을 주고 받지 않을 때도 그들에게는 두 악기가 어우러진 음악이었다.

그러다가 소석행자가 건너 왔고 이반에는 다시 대해가 한 식구로 보태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인담은 그동안 내버린지 오래인 화두를 다시 잡아 선정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고 우녀도 화두 없는 묵조의 선에 들어갔다.

다만 인담의 염불선이 낭랑하게 소리를 내던 흥겨움은 일단 멈추어서 이 섬의 좌선 시간은 파도소리 속의 고요로 돌아 갈 수 있었다.

그들 네 사람은 즉 할 말만 하였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인담과 우녀의 하루하루가 그대로 대하 관속들의 뿌리 뽑을 수 없는 부패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동떨어진 사실 때문에 이 섬이 세상의 모든 것을 꽃피우는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 이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인담과 우녀의 정신은 그들 자신의 것일 따름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루어 온 고독이기도 하였다. 아니 그 고독 없이는 이 섬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어느날 이곳은 세상의 일로 그들만의 보석과도 같은 고독이 깨어지는 것 같았다. 무욕도 북쪽 기슭에 몹시 부패한 시체가 떠내려 와 있는 사실 때문이었다. 시체는 퍼렇게 되어 있고 목은 없어졌다. 팔과 복부의 한 구석은 고기들의 입질이 있었던 것처럼 뜯겨져 있었다.

인담이 긴장 하였다.

"틀림 없는 육지에 머져 있는 괴질 환자의 시체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고기들 조차 건드리다 그만 둔 시체인데…."

대해가 낙배에다 그 시체를 비끌어 맨 뒤 섬으로부터 멀리 나아가 버리자는 것을 인담이 심에 끌어 올려 화장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그 일은 인담과 대해가 맡았고 우녀와 소석은 거기에 오지 않도록 막았다.

그동안 인담이 쳐어둔 장작 더미의 절반 이상을 세로 가로 쌓은 뒤 그 위에 천으로 돌돌 말은 시체를 올려 놓았다.

화장 뒤 뼈 빻개는 흙을 파 광로로 묻어 버렸다.

그런뒤 우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대해와 소석행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수군댔다.

"그 송장이 가져 온 병에 걸리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어요. 이런 섬에서 입사리 악을 지어 올 수도 없고…."

그러나 정작 인담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하루에 한두번 우녀가 누운 방에 들어가 몰 사이의 허물없는 말이나 주고 받을 뿐이었다. 우녀도 그 자신의 병에 조금도 초조하거나 불안해 하거나 하지 않고 마치 어미닭이 갓 깨어난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병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문수보살의 문병 인사에 중생이 앓으므로 나도 앓는다고 말한 유마거사 노릇을 잘 하는구려."

"그래 문수보살 노릇하러 아니네 밤에 드나듭니까?"

"허허 내가 엄큼한 명꽁이가 되고 말았구려."

"인담은 인담이고 명꽁이는 명꽁이 아닙니까?"

"오늘은 좀 어떠신지?"

"내일은 좀 낫겠지요."

이렇게 병을 견디고 있는 우녀는 끝내 먹은 것을 다 토해 내어 신물이 나는 지경에서 내내 눈을 감고 있게 되었다. 혼수상태이기도 하고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기도 하였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였다.

밤에는 별똥별이 많이 어둠 속을 진한 흰 빛으로 긁그어 가며 사라지는데 우녀의 밤 역시 그가 살고 있는 세상 밖의 여러 세상을 진하게 굼꾸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욕도를 떠난 지난 날의 도반들을 하나하나 점검이라도 하는 것처럼 꿈 속에서 볼 수 있었다.

만화 그리고 곰보 남각 합두 불이 무전과현 수원 수월들이 차례로 우녀의 꿈 속에서 나타났다. 이를테면 그의 병은 육지에서 떠내려 온 가난한 시체로부터 옮겨진 병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수행하다가 떠난 사람들의 생명들이 그를 통해서 각자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병을 우녀에게 보내 온 것인지 몰랐다.

만화는 천상계 도솔궁 외원(外院)에 있었으나 천상계의 수명이 다하자 아주 무서운 고통으로 그곳에서 살았던 마지막 보상으로 치뤄내야 하였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깊이 후회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런 천상계에 와서 그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고통을 끝으로 하고 떠날 바에는 도무지 천상계의 복락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후회 가운데서도 그 청정한 허공의 천상계를 날아다니는 비천(飛天) 낙천(樂天)의 유정(有情)으로서 하늘 속의 음악을 즐기고 하늘 속의 향기를 즐기던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미 한번 입으면 언제까지나 더러워지지 않는 옷이 더러워 졌을 때 만화는 질겁 하였다. 그의 머리 위에 늘 꽂혀 있던 꽃이 시들어 버려서 그 꽃을 몰아 허공에 던져 버렸다. 그런 다음 그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 싹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다. 겨드랑이 땀이 멈추지 않고 이제까지 그토록 즐거웠던 천상계가 몹시 싫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다섯가지 쇠운(衰運)을 맞은 뒤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한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질러대야하는 천상계의 마지막이란 천상계도 결코 중생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런 만화가 천상계의 업을 다 마친 뒤 몇군데의 윤회를 지났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어느 광활한 벌판의 승냥이로서였다.

들이 기울어 버린 한밤중에 그 승냥이의 울음 소리는 혼자 처절하였다. 배가 고팠다. 그래서 다친 다리를 이끌고 사냥감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야 하였다.

그러기전의 울음 소리를 우녀가 곰속에서 듣고 그 만화에게 한없는 연민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나머지 우녀는 꿈 속에서 그런 승냥이 만화에게 한 마리 토끼가 되어 잡아 먹히는 것이었다.

꿈 속은 이토록 또 하나의 중생과 보살들의 세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배가 고픈 승냥이가 내달려가 잡아먹은 토끼는 승냥이 뱃속에서 독을 가진 풀을 먹은 채였으므로 승냥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였다.

우녀는 만화가 승냥이로부터 다른 중생으로 바뀌 태어나기 직전의 윤회를 곰속에서 마치 현실 그 자체인 듯이 분명하게 목격하였다. 승냥이는 죽었다. 그런 뒤 어느만큼 시간이 흘러가자 이번에는 중국 양자강 하류의 어떤 농부의 집에 새로 들어 온 고아출신의 소녀 뱃속에 들어갔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공고관련용품 • 정보교환,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절터 최적지
장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하동 진주 사이) 지리산 줄기,양질의 지하수 도로, 토목공사 완료
평수 : 11,460평 (평당 10,000원)
연락처 : 0346) 594-4974

포교당안내
장소: 장남생룡역 근방 3층 25평 시설완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8만원 시설비 절충가
장소: 장한동 3층 30평 시설완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 시설비 절충가
연락처: 246-6858, 011-574-8879

급 사찰부지 및 실버타운 최적지
◈ 서울근교 (잠실역에서 40분거리)
◈ 정남향. 자연경관 수려 (저수지 근접)
◈ 1920평~2500坪 (평당 10만원)
◈ 항시 차량대기 현장답사
연락처 TEL. 420-5474-5
B.B 012-272-0025 안태진

삼보와 함께 할 식구를 초빙합니다
■ 노전 부전스님 (훌륭한 기도스님최고 대우함)
■ 종무소 사무장급 경리사 ○명 (컴퓨터 조작 가능자)
■ 공양주 보살님 ○명
접수기간 : 1996년 8.30 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전 화 : 902-2663 903-3361
FAX : 990-1885
이력서를 먼저 FAX로 송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B/D (을지로 2가)
전화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척추교정 · 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 체조및교육내용 ▶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성오행 건강 지압법
서술도 별책참
장실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기도 · 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장경독송방법
참회 · 업장소멸과 자녀교육에 도움
가족법회, 건강문제
꿈바위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 - 2
(02)739-5007-8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화엄사 우주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문짝
• 서울 백련사 법상 수미단 등의 작성함
• 송광사 상월사 대웅전 문짝
• 화엄사 업무실 대웅전 법무실 문짝
• 서울 백련사 대웅전 문짝 단청
• 충무 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작
• 서울 조계사 대웅전 수미단 등작
• 고려 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청
• 서울 조계사 대웅전수미단문짝법상경작
• 서울 조계사 회관 불사, 그외 제수 사업
대전(전송)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상

학생모집
◆ 조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 유아교육과 — 음악놀이, 아동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놀이사 상담사) 취득가능
2. 스쿨 버스 통학 가능
3. 총목 리산에서 월2회 강의 (교육협인기 90호)
TEL 02)931-6075-6
만대교학대학원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사찰명 : 감로사
소재지 :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1-1
주 지 : 조무래 (법명)영봉
신도회장 : 성대경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 공고함
1996년 8월 5일

승복점
장소: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평수 15평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2만원
* 승복 · 한복 겸하여 운영중
연락처: 0331)254-1263, 015-125-1263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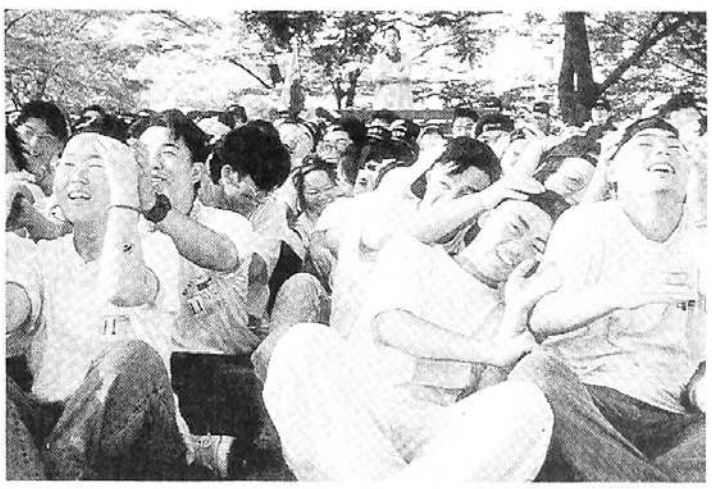
산사에서 기도하실 스님
· 강원도산사, 경관수려하고 시설 수용 넉넉함
·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는 스님이나, 신심있는 불자님들이 오시면 잘 위로해 드림
· 초심 수행자도 환영
연락처 ☎ 0365-461-7294, 0346-592-7315

대불련 「한국불교 1600년대회」 현장

"21세기 새날 열자" 한뜻 다짐

1천여 대학생 미륵사지 서탑서 천등장엄

풍물·노래한마당등 주민동참 '포교일조'



◇이번 대회에 참석한 대불련 회원들은 희망과 모범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일궈갈 주체가 될 것을 서원했다.

"희망과 모범으로 21세기 새 날을 여는 대불련이 되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가 지난1일부터 3일까지 미륵의 성지 전주에서 실시한 '제15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불자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서울·경기를 비롯 전국의 1백여개 대학에서 참석한 6백여 대학생 불자들은 전북대학교 교정 및 전북지역 일대에 법석을 마련해놓고 불심과 우정을 다졌다.

이번 대회에 동참한 대학생 불자들은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원력으로 한여름의 더위를 무색케 했다.

첫날 전북대학교 교정에 모인 전국의 대불련 회원들은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탓에 서먹했던 대불련 회원들은 하루종일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던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을 무렵, 한마음 한뜻으로 저녁예불을 올리며 4박5일동안 불제자로서 용맹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청년불자들의 염불소리는 활기찬 한국불교의 앞날을 예견하듯이 힘에 넘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천등불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전주 송광사와 김제 금산사 순례에 이어 익산 미륵사지에 도착한 대학생 불자들은 백제인들의 염원이 서린 미륵사지 서탑앞에서 한국불교의 중흥과 불교바로세우기의 서원이 담긴 등을 달기 시작했다. 서탑이 천등으로 장엄돼지 승무를 통한 축원의식이 봉행됐고 대불련회원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한국불교 1600년대회의 절정은 포교대회와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노래한마당. 풍물패를 앞세워 진행되는 포교대회는 대불련 회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불교의 참다움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또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노래한마당은 이번 대회가 대불련만이 아니라 지역불교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지역불교 발전에 일익을 하겠다는 원력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다.

젊은 학생들이라서인지 제일 관심있는 프로그램은 뭐니뭐니해도 대동놀이 시간. 전국의 각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설치하고 자신의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나가돼 대불련으로의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인만큼 회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게다가 풍물패의 신명나는 공연이 곁들여져 대학생 불자들의 흥을 돋구기에 충분했다.

이밖에도 이번대회에서는 지선스님(전불련 상임의장),유정희씨(대불련 지도위원장)의 강의와 법등구미기, 토론회, 가요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돌아가면 학교 선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고 말하는 박봉영씨(원광대 경영학과 3)는 "이번 대회를 통해 타지역회원들간의 유대강화와 신심함양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마지막날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자자와 포살을 통해 "한국불교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더욱더 힘있는 전진과 수행을 통해 내가 할일을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굉가했다.

4박5일 동안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며 대불련회원들은 "이제는 각 지역에서 용맹정진해 대불련이 한국불교의 명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김중근 기자



청교련 문화캠프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서울을 비롯 전국의 각 지부·지회 2백여명의 청소년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6 청소년문화캠프를 실시했다.

'가자! 문화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통악기배우기, 문화탐방, 음식문화배우기, 민속놀이 한마당, 의상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위덕대 첫 방학 신행 활발

마하자나학생회 수련대회 참가

교수·교직원등 수행프로 참석 열의

지난 3월 개교한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가 첫 방학을 맞아 신행활동 열기로 가득차 있다.

개교년도 봉축불사에 한 획을 긋게 될 위덕대의 신행활동은 지난 6월 13일 불교대학생회인 '마하바이로자나'가 창립법회를 갖고 임원진을 구성한데 이어 위덕대 전 교직원들도 지난 7월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수련회를 개최하여 불교와 종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심을 고양하여 동체대비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불교대학생회 '마하바이로자나'는 방학중 임원회의를 자주 열어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마하바이로자나는 사무국과 연수원을 두고 또 회원 개인의 체질에 맞는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몇개의 전문활동반을 구성키로 했다. 현재 회원은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마하바이로자나 임원단및 10여명의 회원들은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종조탄생지인 을룡도 금강원에서 진각종 청년회가 주최하는 수련대회에 참가하여 트레이닝을 겸할 계획이다.

불교종립대의 위상에 걸맞게 위덕대는 교수 23명 교직원 38명중 40여명이 신행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법회에 참석하는 교직원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신심을 깊게하기 위해 정교실에서 주관하는 매월 월초불공에 참석, 불공수행하는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위덕대 심인실(정교 덕일정사)에서 열리는 '기본수행법' 시간에도 30~40여명의 교직원이 무루 동참하고 있는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5월 한달동안 ASEM 경주유치운동을 벌여 위덕인의 공동체의식에 이바지한 바 있는 위덕대는 2학기에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인골프장반대서명운동등 불교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신행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편 위덕대 기획홍보담당관실이 최근 펴낸 정책자료집 '위덕인의 세계'에 따르면 위덕대 첫 신입생 4백명중 종교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한 3백87명 가운데 5%인 21명은 불만이 있다고 다답한 반면 전체의 95%가 설립재단에 대한 종교적 불만은 없다고 응답해 위덕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재단종교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덕대에는 현재 진각종 신앙학생 19명을 비롯하여 조계종등 타종단 1백34명등 1백53명의 불교신앙 학생이 있으며 개신교 33명 천주교 16명 기타종교 9명 무교 1백76등의 종교분포를 보이고 있다.

김원우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애착의 장 *
모든 애욕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욕정의 덩굴은
이리저리 뻗는다

이 향 원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국반판 256p 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중보판 국반판 352p 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도시에 사찰경 뒷장에 법보시시 법회인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난치병 완치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100% 완치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스님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는 중생은 없는지요?
▲ 전국에 난치병을 완치한 자가 수천명에 달합니다.
▲ 온갖 방법 다 써도 실패 한 분

■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 한방 : (053)564-3355

대구 여래 한방

쉽고 재미있게 읽을수 있는 중급교리 반야 심경강의

최상의 지혜
석우스님 지음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것이 낫고 아는 것 보다 깨닫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며, 불자이면서도 아직 가슴 저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깨침이 오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일어나길 바라고, 깨달은 경험은 있으나 깨달은 바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진정한 구도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관음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 720-1147~8

교직자 양성 전문 교육

제2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8월 1일 ~ 8월 31일
■ 개강일시 : 1996년 9월 2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앞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상당법어(上堂法語)는 스님들의 깨달은 말씀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옛 조사들의 어록들은 돌덩이처럼 박혀 누리를 굴 때도 있고, 오색영롱한 사리처럼 살아 대천세계를 밝은 빛으로 비추기도 한다.

사제지간인 성우스님(대구 파계사 주지)과 김규대법사(육군 군종감실 · 중령)가 274명의 방대한 조사 · 고승들의 선어록을 집대성한 〈상당법어〉(전 2권 · 토방 刊)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274명 역대조사·고승 선어록

'상당법어' 집대성

성우스님 · 김규대법사 공동작업



◇성우스님



◇김규대법사

특정한 인물이나 국적 · 종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맥과 생멸연대순으로 고승들의 법어를 대부분 망라한 이 책은 우리나라 근 · 현대 고승과 생존 고승들의 상당법어까지 함께 수록해 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한다. 특히 〈전등록〉 〈선문염송〉 〈조당집〉 등 대표적인 선어록과 각종 법어집을 참고해 가장 방대한 선어록을 엮은 점과 빠짐없이 인용문의 전거를 밝힌 점 등이 자료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국적 · 종파초월 총망라

생존고승 12명도 포함

성우스님은 "선종인 조계종이 선종어록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보를 잃어버리는 일과 같다"며 "이번 작업이 선종의 맥을 짚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발간 동기를 밝혔다.

유명한 율사(조계종 계단위원)이면서도 치열한 선사의 면목을 지닌, 또 아름다운 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시인의 명성을 갖춘 성우 스님의 이번 저술도 '계와 선은 둘이 아니다(戒禪不二)'라는 평소의 소신을 보여준다. 성우스님은 "계와 선을 구별하고 서로 무시하는 것은 수행이 부족한 사람들의 단견"이라며 "수행이 바탕에 쌓이면 선과 계와 교육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공동저자인 김규대법사는 "세상을 밝히는 선지식들의 눈밝은 지혜와 탕탕한 모습이 본성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오늘날 중생들에게 무명의 어둠을 몰아내는 청량한 충격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에 상당법어가 수록된 생존 고승은 월하 서응 혜암 월산 성수 서암 법룡 청하 자유 화엄 진제 영파스님등 12명이다. 〈경〉

■ 민족사 '한국근대불교사연구' '… 불교자료전집' 출간

"일제하 불교사 총정리"

미개척 분야 반세기만에 조명



◇김광식씨



그간 미개척 연구분야로 남아있던 한국 근·현대 불교사가 광복 후 반세기만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광복 51주년을 맞아 〈한국근대불교사연구〉를 출간함과 동시에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전 70권 · 관련기사 6면)을 곧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료부재와 무관심, 연구 부족 등으로 한국불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광식 책임연구원이 쓴 〈한국근대불교사연구〉는 일제강점기 불교사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최초의 본격적인 단행본 연구서란 점에서 근대 불교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전망이다. 또 180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불교사 관련자료를 담는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방대한 잡지 신문류 도서류 문건류 등의 자료를 해제와 곁들여 편집 · 영인함으로써 근 · 현대 불교사 연구에 가장 충실한 1차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불교사연구〉는 1910년대부터 1945년 광복까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불교계의 현실 인식'에서는 1910년대 불교계의 진화론 수용과 사찰령, 조동종 맹약과 임제종 운동,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을 서술했다. 제2부 '불교청년운동'에서는 이영재의 생애와 〈조선불교혁신론〉, 조선불교청년회의 역사적 고찰,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을 담았다. 제3부 '불교계 통일운동'에서는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 1930년대 불교계의 종헌 실행 문제,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과 조계종 성립 등에 대해 기술했다. 이밖에 부록으로 5백여명 이상의 인물을 수록한 '한국 근대불교인물행적 기초조사록'도 참고자료가 될 만하다.

불교사연구 총본산건설운동 조계종 성립등 조명

불교자료집 잡지등 근 · 현대 불교자료 70권으로

내달 출간예정인 〈근현대불교자료전집〉은 〈조선불교〉〈일광〉〈평범〉〈녹원〉〈홍법우〉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잡지 10여종을 포함, 모두 20여종의 불교잡지를 수록하고 있으며 '조선불교선종 종헌'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회의록' '조선불교 교헌' '조선불교대회 기요' 등의 각종 회의록 및 자료집을 두루 담고 있다. 또 '한국불교 정화의 투쟁경위서' 등 정화관련 자료도 있어 비구-대처 분규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집은 김광식 책임연구원과 동국대 경주캠퍼스도서관 이철교 열람과장의 공동노력으로 빛을 보게 됐다.

이같은 2종의 근·현대 불교사 관련 역작을 낸 김광식씨는 "자기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하려는 건강한 역사의식이 없이는 미래의 희망은 담보할 수 없다"면서 "불교종단들이 종단 및 한국불교사의 재정립 차원에서 근·현대 불교사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출판 소식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우 학	좋은인연
2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기도	일 타	효 림
5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6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7	영원한 대자유인	강 정 진	경 서 원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9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10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구입문의:(02)737-0695

학림스님 '생활불교시리즈' 펴내

학림스님(예천 법화암 주지)은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시리즈로 〈석가모니불 500대원〉 〈지장경〉 〈장수멸죄경〉(운주사 刊) 3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생활불교 시리즈는 누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생활화하도록 경전을 학술적인 분석보다 실천에 중점을 두고 쉬운 한글로 옮겼다. 또 관련 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법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가모니불…〉은 〈비화경(悲華經)〉을 통해 현겁 사바세계 오탁악세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의 500가지 서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장경〉은 〈삼세 인과경〉이라 할만큼 삶을 심도있게 다루며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를 강조한다. 〈장수멸죄경〉은 장수 행복뿐만 아니라 낙태 인과, 영가천도 등 인간의 평생 건강법을 담고 있다.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번역출간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산하 출판사인 도서출판 어진벗이 '자원봉사 총서' 제1권으로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지난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중등교육에까지 도입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은 자원봉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봉사활동 사례 30가지를 담고 있다.

일본청년봉사협회가 엮고 김영민씨가 번역한 이 책은 자원봉사란 자기 자신의 사회체험 학습이고 각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배움의 장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어진벗은 〈자원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 활동의 실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02)723-6258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지욱대사 '주역선해'



방 인
〈경북대 철학과 교수〉

내가 지욱(智旭)의 〈주역선해(周易禪解)〉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대학 3학년때, 서당에 다니며 〈주역(周易)〉을 배운 이후로 〈주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항상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숙제였다. 이러한 숙제를 풀려고 대학원 시절에는 '다산 정약용의 주역해석'으로 석사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아마 내가 지욱대사의 〈주역선해〉를 접하게 된 것도 그 시절 전후였던 것 같다.

〈주역〉하면 으레히 유가의 경전이요,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의 역(易)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상식인데, 도대체 선해(禪解)란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제목에서부터 상당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실제로 발견하게 된 것은 명동의 어느 중국서점에서였는데, 소문으로 듣던 책이 바로 이 책이로구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얼른 구입했던 생각이 난다.

경전을 배우면서 육상산과 왕양명의 심즉리설(心卽理說)에 도취하게 되면서 노장(老莊)과 불교를 배척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벽불론(闢佛論)〉 수십편을 짓게 된다. 그러나 그는 운서(雲棲) 주굉의 〈죽창수필(竹窓隨筆)〉 등의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그가 스스로 지은 〈벽불론〉을 불태우고 만다. 마침 내는 감산 덕청의 문인인 설령(雪嶺)을 찾아가 출가하게 된다. 이처럼 유불회통적(儒佛會通的)이었던 시대에 살았던 지욱은 그의 삶 자체가 유불교섭적 인생이었다. 〈주역선해〉는 지욱의 이러한 유불융화적 사고의 산물이다. 나는 〈주역선해〉의 독특한 가치가 지욱의 개인적인 체험과 시대정신을 융합해서 이루어낸 고유한 세계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에 유가의 세계가 따로 있고, 불교의 세계가 따로 있을 리 없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 뿐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이름도 소속도 없는 것이다. 지욱의 〈주역선해〉는 이처럼 동강나지 않은 세계를 통채로 꿰뚫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데올로기의 차이나 종교의 차이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지욱 같은 관용적이고 회통적인 사상가가 그리워진다.

유불회통사상 토대 주역 해석

역학의 이치등 꿰뚫어 보여줘

새로나온 책…

함께 수행하는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수행담을 모아 엮었다. 금강경독송회는 내무부장관 · 동국대 총장을 지낸 故 백성욱박사가 1931년 금강산 지장암에서 수도하며 제자를 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체. 〈용화 6천원〉

▲49재 공덕과 의미(편집부 엮음)="죽은 이의 영가(靈魂)는 49재를 통해 불법을 듣고 깨우쳐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왕생 한다." 49재와 영가 천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정성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49재의 참뜻과 공덕을 쉽게 풀이했다.



또 생생한 영험 사례도 실었다. 〈이바지 3천원〉

▲바가바드 기타(함석헌 주석)=루르크셰트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무대로 한 〈바가바드 기타〉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모순을 나타낸 인간내면의 전쟁을 표현한 힌두교 성전. 인도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공유하며 다양한 인도를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뜻 위주로 번역. 〈한길사 2만원〉

▲우리 민속현장 답사기(민속학회 저)=우리 삶의 심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온 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 온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풍류가 있는 여유로움이었다. 민속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각 시기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민속문화들을 가려뽑아 답사했다. 〈태일 6천5백원〉



▲돈키호테 소방관(윤수천 글 · 최민수 그림)=우리의 전통사상인 효,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도깨비와 어린이들과의 우정, 그리고 교육 통일 환경 등 여러가지 주제를 창작동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고려원미디어 4천원〉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분별을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1부 :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느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
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
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금강경독송회 엮음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 백 선생님 법문에 〉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2동 1269/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 720-9372,9373/ 팩스 (02) 723-0646
금강경독송회/ 서울 해화법당(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323/ 포항 금강정사(0562)61-2231

현대불교신서5

반야심경 해설서의 새로운 地平
현대인을 위한

반야의 가르침

친근하면서도 어려운 반야심경,
260字가 품고 있는 비의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만나 보십시오.
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전해석을 축으로 하고 풍부한
예화(例話)와 적절한 인용을 곁들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반야심경 해설서.

송지호 글 / 신국판 / 420쪽 / 6,000원

저자 송지호씨는
군산수산대학 교수로 지내셨고
현재는 금당사 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전을 쉽게 해석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2. 대장부론
3. 법화경 강설
4. 육묘법문
5. 반야의 가르침
6. 반야경(가제) 〈근간〉

불서전문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중생구제 지장보살 드라마틱하게 묘사"

창작국악교성곡 '지장경' 작곡 김회경씨



"작곡전이나 작곡중에 〈지장경〉을 수십번 읽고 반영규선생님이 쓰신 가사를 수백번도 더 읽었습니다. 육도중생들을 교화하려 고통받는 중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탈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님의 크신 서원이 읽을수록 가슴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곡으로 심혈을 기울였기에 완성한 소감이 남다르지만 특히 7살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작곡에 임했다고. 이 곡에는 그리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과 아내가 죽은뒤 재혼않고 혼자 살아온 아버지의, 아내를 그리는 지아비의 애틋한 마음까지 담겨 있다.

합창·무용·범패등 총 9장 2시간 대곡

11월 국립극장서 초연 내년엔 오페라 공연도

"우 모음을 많이 활용하여 악장악장을 연결시켰습니다. 같은 음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선율과 화음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뒤로 갈수록 고음화됩니다. 가엾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지장보살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한 것이지요."

지장경을 소재로 했다하여 우울한 곡으로 예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곡 전체가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어 힘있고 드라마틱하며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다.

김회경씨는 "화엄경 법화경 등 경전을 계속 작품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이경숙 기자

만나봅시다

명콤비

뮤지컬 '님의 침묵' 13년만에 재연

주연 김갑수 음악 유승엽씨

만해스님 연기로 음악으로 환생



◇김갑수씨



◇유승엽씨

오는 9월10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님의 침묵'이 공연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대에서의 뮤지컬이 지금처럼 호응을 받기 훨씬 이전인 지난 83년 초연때 3개월간 관객 5만여명을 동원하여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가늠해 주목을 받았던 '님의 침묵'. 13년만에 같은 주연(김갑수) 연출(김상열) 음악(유승엽)의 명콤비가 이번에는 어떠한 성숙된 변화를 보여주며 관객을 사로잡을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스님의 내면 연기 혼신 김갑수

다양한 장르 29곡 편곡 유승엽

"초연때는 객석 2백석의 소규모였으나 이제는 대형무대에서 하는 만큼 뮤지컬의 스케일이 한층 크고 박력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스님이라는 거목에 맞는 상징적이고 격정적인 선율과 무용으로 이루어진 2시간 10분 내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유승엽씨는 이번 뮤지컬을 위해 29곡의 노래를 새롭게 편곡했다. 가곡 트로트 록 등 다양한 장르가 두루 들어갔다. 특히 '님의 침묵'과 독립선언문을 가사로 한 '삼일운동' 노래는 노래중 백미가 될 것을 자부한다.

최근 가장 바쁜 영화배우 및 탤런트로 부상한 만해역의 김갑수씨 역시 또 한번의 만해역을 맡는 감회가 남다르다. 왜냐하면 '님의 침묵'이야말로 그를 인물창조가 뛰어난 성격배우로 규정지어준 대표작과도 같은 연극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해역이 '길떠나는 가족'의 이중섭, '금흥아 금흥아'의 이상, '태백산맥'의 염상구, '찬란한 여명'의 동인스님 등 선 굵으면서 개성있는 인물을 맡게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만해역을 하게되었으니 좀더 만해의 인간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내면연기에 혼신을 쏟겠다"며 의욕에 차 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라는 불음가요로도 불교계에 널리 알려진 유승엽씨는 '님의 침묵'의 전곡을 모아 CD로 낼 예정이다. 〈숙〉

특별기고

'동쪽나라'를 살리자



고 은 〈시인〉

"새싹불자 키우기는 대가람 중창보다 미래불교 주춧돌 놓기"

올해 교계가 내건 과제는 '청소년 포교의 해'이다. 그것은 백번이나 옳은 과제이고 때늦은 과제이기도 하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지 1천6백년의 역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제는 어떤 전통과 토착적인 가치도 불교의 그것에 미칠 수 없도록 불교의 사상 및 신앙 그리고 그 실천의 덕목들은 이 땅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 중에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불교가 혹은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낡은 것으로 여기게 되거나 과거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불교의 진리가 낡았다는 것이 아니다. 진리 자체야 낡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닌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 그리고 냉전시대를 거치는 등안 이제까지의 서구중심의 문명이 그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그것의 원대한 극복을 불교에서 찾는 일이 하나의 사상사적 숙제이기도 했다.

서양에서의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 땅의 오랜 불교와 함께 살아온 우리는 불교에서 새로운 가치발견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불교를 낡은 종교로 오도함으로써 낡은 기복신앙으로만 만족하는 일은 지적되어 마땅하다.

이런 실태인데 눈을 밖으로 돌려본다면 다른 종교들이 어린이 신앙과 청소년 종교에의 구조적인 장려는 실로 무서울 정도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 땅에서 어린이 신앙의 과정이 극히 빈약한 우리 불교는 그 장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마도 이같은 위기의식이 올해를 '청소년 포교의 해'로 삼아 조금이나마 어린이 및 청소년 불교에 힘을 보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포교의 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책을 면할 수 밖에 없도록 한일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다른 종교들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견줄만한 것이 불교 쪽에서는 거의 없다.

우리는 올해 벽두 '어린이불지를 키우자'라고 선언한 바 있거니와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교계 유일의 어린이 불교잡지 〈동쪽나라〉가 그 누적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종간이라는 비극에 이르렀다.

그동안 〈동쪽나라〉가 끼친 어린이불자 키우기, 어린이 불자의 긍지 제고,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에 걸친 불자 및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불교적인 꿈에 세계를 다양한 읽을거리로 제공하는 것은 어떤 대가람 중창보다 더 뜻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나라〉가 더이상 속간될 수 없게 된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교계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동쪽나라〉를 살려내어 어린이 불자, 청소년 불자의 오랜 벗으로 지속시켜 주지 않으면 이는 1천만 불자를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면목이 내팽개지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동쪽나라〉가 높은 취지를 내걸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은 일은 늙은 불교, 과거의 불교를 오늘의 불교와 내일의 불교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크다. 광복 50주년인 지난해 〈동쪽나라〉 어린이들의 탑골공원 행사나 백두산등반 행사들은 정부 당국이나 사회 각계의 칭송을 집중시킨 바 있다.

어디 그뿐인가. 〈동쪽나라〉의 지칠줄 모르는 창의 그 자체야말로 교계의 쇄신하는 문화역량이기도 할 것이다.

불교계가 어린이불자들의 잡지 〈동쪽나라〉를 살려내지 않으면 〈동쪽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불교의 장래가 없는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동쪽나라〉를 살리자! 이 외침만이 올해 '청소년 포교의 해'를 넘어 한국불교의 끝없는 희망에 닿고 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외침으로 그치지 않고 당장 〈동쪽나라〉가 속간되는 경사로 나타날 때의 희망가운데 불교의 중흥이 가능하다.



◇성륜스님作 '와불 일어나시다'.

'와불 일어나시다' 30여점 전시

성륜스님 19~27일 갤러리 서호

'물고기들의 합창' '돌이켜 보는 삶' 등 개인전과 이벤트로 잘 알려진 성륜스님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갤러리 서호(02-723-1864)에서 '와불 일어나시다' 주제로 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연꽃과 부처님을 소재로 문자와 형태의 합일을 선적(禪的)으로 표현한 30여 작품이 선보인다.

평론가 정충락씨는 "소리없는 언어는 평면의 겹치기를 입체화로 바꾸고 불투명을 투명하게 수용하여 신명나며 재미있게 구축한 성륜식의 큐비즘을 새롭게 이뤄놓고 있다"고 평한다.

한글 창제 550주년을 맞아 한글의 문자적 조형성을 재조명하는 '한글서예의 오늘과 내일전'이 오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남궁억 윤백영 이철경 서희환 등 작고 서예

한글서예가 작품 한곳에 25일까지 예술의 전당서

가와 김충현 김기승 등 원로작가 중견작가등 2백여 한글서예가의 작품과 서체개발회사에서 디자인개념으로 접근한 다양한 한글 서체가 선보인다. 궁체 흘림체등 조선시대 서체와 안체 한체 산돌체 등 그동안 개발된 서체 20여점이 전시된다.

"역사속에서 걸어나온 인물들"

김호석그림전 성철스님등 만날 기회

만해 성철 관응스님, 최익현 황현 김옥균 전봉준 홍범도 신채호 안창호 김구 여운형선생, 그리고 문익환 윤이상 김남주 최순우 김수환 임창순 박경리 김근태씨… 이름만 들어도 우리 근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들이다.

전통 재료와 기법에 의한 역사인물화를 그려온 김호석씨가 '역사속에서 걸어나온 인물들'이란 제목으로 근 현대인물 20인을 그린 작품전을 27일까지 견지동 동산방화랑(02-733-5877)에서 갖고 있다.

지난해 전통기법에 의해 성철스님의 영정을 재현, 그림전을 가져 큰 반향을 일으킨 김씨는 대상 인물들을 세심한 묘사력과 뒤에서 색깔을 입히는 배채를 이용한 전신적인 기법으로 재창조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다.



◇김호석씨의 '역사속에서 걸어나온 인물들'展에 나온 관응스님 영정.

전시회에 맞추어 강만길교수(고려대) 김성동씨(소설가) 등의 20명을 조명한 인물평과 함께 작품을 실은 역사인물화집 〈역사의 이름〉도 함께 출간됐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붓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240면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각종단 '한일교류' 활발

조계종 매년 한일합동 위령재 개최
태고종 日에 전쟁희생 한국인 위령탑
천태종 난민구호사업등 협력 가시화
진각종 진언종과 학술교류 움직임

한·일불교교류는 각 종단을 중심으로 과거청산과 우호교류분야에서 양국의 민간의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올해들어 두드러지게 학술·문화·국제구호사업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미 조계종은 홍법원 설립에이어 일본 고려사 태연스님을 중심으로 교류가 무르익어 한일과거청산 운동까지 발전돼 있다. 지난 80년 한일불교친선협의회를 창립해 한일합동 위령재를 개최하고 84년 한일우호 평화의 탑을 고려사에 제막했으며 95년 7월 범종교적 사회지도층인사와 일본인들까지 대거참여하는 한일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고종 일본종무청 금강사(주지 운산)는 나가노겐의 일본승려, 학생, 일본단체, 민단등과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이며 2차대전중 일본천황의 피신처 지하본영을 구축키위한 작업중 억울하게 희생당한 7천여동포의 원혼을 천도키위한 위령탑 건립에 한창이다.

금강사를 비롯한 관계단체들은 최근 나가노시장을 접견하고 마쓰시로 부근에 위령탑 부지를 협조해 줄것을 요청, 부지협조를 확답을 받았다.

태고종은 이와함께 60년대 이후 교류가 중단된 일본정토종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태고종은 일본정토종과 염불 불교의식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교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한·일공동법회에 참석한뒤 학술·문화교류에 물꼬를 트고 국제 구호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기간에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비(碑)'도 건립할 예정이어서 아시아평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천태종은 일본천태종과 구체적으로 문화·학술·인류복지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문화사업으로는 양국불교문화에 기반한 음악 미술등의 공연과 전시회를 갖고, 학술사업으로는 올해 11월에 개원할 예정인 천태불교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한일 양국 천태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천태학 이념 구현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인류복지사업으로는 르완다 라오스 방글라데시에 초등학교 지어주기운동등 난민구호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양국의 발빠른 우호교류는 실질적인 협력차원의 가시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진각종(통리원장 락혜)도 오는 9월 한중일대회 시점에서 일본 진언종과 공식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진각종과 일본 진언종은 지난 6월 한일불교교류대회에서 논의를 거친뒤 최근 종단교류를 강화키로 합의하고 오는 한·중·일서울대회에서 구체적인 교류방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양종단은 종립대학인 위덕대와 일본 고야산대학의 밀교학 연구등 학술교류를 시발로 점차적으로 청소년 문화교류로 넓혀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파라미타 덕유산 연합캠프 현장

"젊은 여래의 사자 되겠다" 3천여 청소년불자 선서

"연합캠프를 통해 스스로 땀을 리고 노력하여 자신을 바로 세워 젊은 여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덕유산 야영장에서 실시한 '제1회 2540파라미타 연합캠프'에 전국에서 참여한 3천여명의 청소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선서했다.

'밝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이란 주제로 문을 연 캠프 첫날은 만남의 날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 지역단위 학교와 사찰에서 이번 연합캠프에 참여하기위해 마음을 조렸던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야영장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합장인사를 나누고 텐트를 설치하며 금새 친숙해졌다.

이렇게 설영작업을 마친 청소년들은 대집회장에 집결, 입제식을 시작으로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부처님 세상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둘째날부터 A, B 두개조로 나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은 마치 밝고 맑은 부처님 세상을 예견하듯이 활기에 넘쳤다.

이번 연합캠프에서 가장 인기를 모았던 프로그램은 삼천불탑 만들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불상, 탑 등을 비롯 불구류를 찰흙으로 직접 만들수 있는 시간이다. 불교조형물의 소중함과 신심증장을 위해 마련된 삼천불탑 만들기에 참여한 정효진양(경기 안흥사)은 "우리 부처님은요. 언제나 밝게 웃으신답니다. 어떤 때는 호랑이 선생님처럼 무섭게 보일때도 있습니다"라며 마음속의 부처님 만들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며 찰흙속에 빠져들었다.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원력을 담아 한마음으로 빚어낸 삼천불탑의 공덕은 한국불교의 앞날을 밝게 하기에 충분했다.

같은 시간 다른 팀은 선재동자놀이(OL게임)에 한창이다. 4명이 한조가 되어 나침반과 지형도를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게 모험심과 진취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선재동자놀이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규정시간내에 목적지를 모두 통과하기 위해 숲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진지함으로 가득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은 백련사 참배, 민속활동(해동검 택견 양궁 윷놀이), 생태계조사, 삼천불탑만들기·선재동자놀이등 열심히 운영 일과정리 알림판에 게시 파라미타게임 등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협동과 우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또 캠프기간동안 청소년들은 신문반을 운영해 하루의 일과를 정리보도하는 한편 알림란을 통해 각 분회의 소식과 프로그램을 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본부에서도 학생들간의 건전한 교류를 위해 우정반(우체국)을 비롯 방송반 법회반 풍물반 등을 운영, 청소년들의 보람된 캠프를 위한 특별행사도 마련됐다.

비록 3박4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기틀은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청소년 포교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조민선


◇전기영


◇이봉주


◇윤혜영

"올림픽 불자선수 활약컸다"

27개 메달중 金5개 포함 11개 획득

Atlanta1996

지난 4일 폐막된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0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이 바로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의 불자선수들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따낸 금 은 동 총 메달 27개 가운데 11개가 불자선수들이 일구어낸 것. 특히 우리나라가 따낸 금메달 7개 중 5개가 스포츠정신을 불심으로 실현한 장한 우리불자 선수들의 것이다.

한국올림픽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연속 개인메달획득의 대 기록을 세우며 의지의 한국인이란 애칭까지 얻은 레슬링 자유형 74kg급 박장순선수는 지난 93년 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훈련과정에서 얻은 오른쪽 무릎부상 후유증으로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예선탈락한 뒤 공식 은퇴했었다. 그러나 박선수는 1년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 태릉선수촌에 입촌, 부상투성이의 몸을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폐막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준 이봉주선수의 은메달 또한 금 못지 않은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봉주선수의 은메달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부처님전에 기원을 올린 어머니 공옥희씨와 아버지 이해구씨의 사랑이 있었다. 또 남자체조 뜀틀에서 '루에르보'라는 신기술을 발휘하며 우리나라 체조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여홍철선수도 자랑스런 불자선수의 한 사람이다.

이밖에 칠전팔기의 신궁 여자양궁 2관왕 김경욱(관련기사 5면), 여자양궁의 막내둥이 윤혜영, 남자양궁의 김보람 등 불자선수들의 활약은 그 어느 올림픽보다 돋보였다.

이번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불자선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금메달=조민선(여자유도, 66kg), 전기영(남자유도, 86kg) 김경욱(여자양궁, 개인, 단체), 윤혜영(여자양궁 단체), 심권호(레슬링, 48kg)

▲은메달=김민수(남자유도, 95kg), 박장순(레슬링, 74kg), 김보람(남자양궁 단체), 여홍철(남자체조), 이봉주(마라톤)

▲동메달=정성숙(여자유도, 61kg)

이은자 기자

태고종 사회복지법인 연내 설립

태고종 사회부(부장 법성)는 종단내 사회복지시설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총무원및 각 시도교구 종무원과 전국사암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7일까지 종단내의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파악한뒤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키위해 올해내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태고종 73회 임시종회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73회 임시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신임부장단 임명동의건 △95년도 세입세출결산건 △분담금 조정의 건 △종단 개혁안 등이 다뤄진다.

천태종 전국 배구대회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오는 18일 단양 영춘중학교에서 제 23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행사는 전국 30개 천태종 청년회 배구팀이 참석할 예정이며 2천여 사부대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한마당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상월 원각 대조사기 전국배구대회는 23년의 연륜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진각종 청소년수련대회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박희택)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종조탄생지인 금강원을 중심으로 율릉도 일대에서 제 23회 진각청년 하기수련회를 개최한다.

'진각 50년과 진각청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진각종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진각종 1백년의 문명을 꿈꾸는 세대의 책무감으로 지역교화 활성화에 힘이 되는 청년회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탁소리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찻잔속의 태풍'

최근 21개 종단이 조계종을 배제한 대한불교종단진흥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으나 불과 며칠도 안돼 진흥회 회원종단들이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찻잔속의 태풍'에 그친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종단협이 회장종단인 조계종위주로 운영돼 왔다는 분위기의 확대로 조계종이외의종단에 소외감의 골이 깊게 패어있음이 노출됐다. 대표적 행사인 부처님오신날 재등행사가 종단협 주최임에도 진행상 조계종단 행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소리와함께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조계종단이외의 스님들의 예우문제가 매년 되풀이돼 여타종단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또 대종단인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대의로 종단협 구성에 당연직 회장 상근부회장등 조계종 이사스님이 5명에 이러 조계종 스님 일색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런분위기와 달리 조계종이외 종단들의 주장들에대해 조계종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보다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해 큰 종단다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계종은 맏형종단격인 만큼 여타종단들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접근, 협의체의 성격에 맞는 민주적인 단체운영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조계종이외의 종단들도 주장하는 바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여 서로 공감대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귀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 종단의 지도자스님들이 '친목'을 표방했지만 공식단체를 출범하면서 절차도 갖추지 않는 것은 한국불교지도자급 모임답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픔없는 환골탈태는 없다'는 옛말이 있다. 어쨌든 이번일을 계기로 종단협은 달라져야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그래서 종단협의회를 누구나 신뢰하고 대표할 수 있는 종단협의체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변화하는 시대상황속에서 각 종단들은 이번의 종단진흥회 발족을 계기로 협력과 동반자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구독신청 737-0691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뜰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 합본호 1집 이제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0호(95.12.27)
■ 기 격 ₩[illegible] (별도)
■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업무과로 직송 (02)737-8881 팩스 (02)737-0697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① ②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어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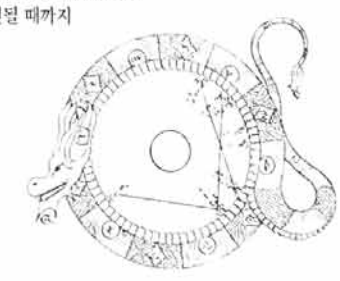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 / 280면 / 값 6,000원



태일출판사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기꾸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현불뉴스

녹원스님 주지 재선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지난 7월30일 산중총회를 열고 현 주지 녹원스님(사진)을 차기 주지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50여명의 산중스님들은 녹원스님을 주지로 추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처님사리 친견 '성황'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감은사지 삼층석탑·나원리 오층석탑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가 지난 6일 회향됐다. 이번 부처님사리 친견법회는 7월11일부터 27일간 10만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조계종은 이날 사리를 제외한 사리함과 사리병 불상을 문화재관리국에 반환하고 9월경 사리함을 제작, 감은사지와 나원리 석탑에 각각 재봉안할 예정이다.

'뇌사' 국민여론 조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일반국민 1천여명과 종교인 의사 법률가 3백명을 대상으로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법률제정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제2차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선원사복원위 현판식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를 복원하기 위한 복원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오는 16일 오전 11시30분 선원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발굴조사단원 위촉식도 함께 거행된다.

전신회 여름수련회

전국신도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시·도지부장과 중앙운영위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코더스코호텔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민족회의' 정식가입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는 지난 7월20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대표 이창복)에 정식 가입,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일운동과 남북불교도임활동을 본격적으로 펴기로 했다.

'사찰환경권' 법적명문화 시급

잇단 개발로 청정도량 피해 급증

문화재보호법·傳寺法도 개정해야

90년대 들어 개발에 따른 사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찰환경권'을 국가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해인총림 대책위원 지산스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골프장 건설취소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가야개발측 손을 들어주었다"며 "사찰환경권을 법조항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사안별로 대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선암사가 지난 9일 개최한 환경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사찰은 민족문화유산과 현재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자율성이 존중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계가 주장하는 사찰환경권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일조권 등을 다루고 있는 생활환경권보다 폭이 넓은 것으로 △문화재 및 문화유산보호 △종교활동자유를 위한 공간보호 △수행도량으로서의 청정성 △사찰존엄과 풍치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법조항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찰환경권은 지난해 9월, 서울 봉은사가 서울지법에 제기한 '전통사찰근처에 고층빌딩 건축시 사찰환경권 침해여부'에서 승소해 법률적 첫 판례로 기록된 사례가 있다.

현재 불교관련 국가법으로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 공원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산림법 건축법 등 10여개가 있다. 이 가운데 문화재보호법과 전사법은 관리지인 사찰의 의무와 규제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악법으로 지탄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계종은 지난해 종단현안문제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국가법령개정(시안)안을 토대로 대정부접촉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역단체장이나 문체부장관의 허가'로만 규정되어있는 것을 '당해사찰이나 종단과 협의할 것'을 추가하고 있어 일정부분 사찰환경권을 담고있다.

연기영교수(동대 법학과)는 "사찰환경권을 법조항으로 명문화 하기위해서는 법률적 이론적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입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운동차원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엽 기자〉



◇경기·강원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사찰이 침수되는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불교계는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수해복구현장에서 지원활동을 펼치는등 보살행에 앞장서고 있다. 〈문산=고영배 기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 이달 결성

대법원 판결 앞두고 백만서명운동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범불교도 공동대책위(상임의장 설정스님)가 지난 7월22일 결성돼 오는 9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1백만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환경 심포지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공감대에 바탕한 대대적인 저지운동을 전개한다.

범불교대책위는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범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회·종교단체까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를 8월내에 결성키로 했다.

또 대법원 심리가 있기전까지 언론·종교·문화계와 연계 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결될 수 있도록 힘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9만명의 서명을 받은데 이어 서울지역사찰 삼보사찰 및 25교구본사 18개 승가대학과 대불청 대불련등 참여단체별로 전국 각지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서명자가 20만명에 이르면 8월25일 청와대를 비롯한 골프장 승인 관련부서와 정계 및 사법부에 각 대책위 공동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각계에 반대운동 동참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인총림대책위는 13일 고령읍 국악당에서 오전 10시 1천여명이 참석하는 고령군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8월14일부터 20일까지 용맹정진주간을 설정해 해인총림 선원은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장좌불와 철야용맹정진을 하고 해인총림대책위는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 불국사 법주사 직지사 범어사 통도사를 직접방문해 10만명 서명운동 돌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 부장급 판사출신의 변호사로 한다는 선임 원칙을 정하고 상고이유서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체부가 8월말까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9월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강제동원 한국인 일본애국자로 둔갑

야스쿠니신사에 영새봉안 '충격'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한국과 일본지식인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스쿠니신사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 2만여명의 원혼을 모신 영새(靈璽)가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단은 지난 7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영새를 즉각 말소하고, 일본 국내를 포함한 각지의 한국인 유골수습에 대한 인도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영새'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신(神)을 말하며, 일본은 72년 야스쿠니신사에 영새부봉안전을 만들며 △천황의 뜻을 받들어 △조국 일본의 영광을 기원하며 △일본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영령을 모신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수련대회'

"역사바로알기 학습장됐다"

해방후 50년동안 죄인처럼 숨어살아온 정신대 할머니와 하룻밤을 함께하며 이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수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수련회가 열려 화제다.

정신대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인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이 지난 3~4일, 10~11일 두차례에 걸쳐 나눔의집 수련관에서 실시한 '역사바로알기-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여름수련대회'가 바로 그것.

정신대할머니 8명과 30여명의 수련생이 참여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할머니들의 삶의 과정과 일상을 그린 '기록영화 제작소 보임(감독 변영주)과 함께하는 영화'를 관람했다.

또 정신대연구회 종무 강정숙씨(경기대 강사)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박원순씨(대한변협 공보이사)의 '국제법에 비춰본 일본군위안부 민간보금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도 각각 있었다. 이어 정신대할머니와 서로 얼싸안고 춤추며 함께한 강강수월래 지신밟기 등의 놀이한마당이 이어져 이날 수련회는 우리역사바로알기의 학습장으로 효과만점이었다는 평이다. 〈필〉

교계 水魔상처 치유 '앞장'

자원봉사단 파견·성금전달등 보살행 발길이어

봉선사·군법당등 사찰 6억여원 피해

지난 7월26일부터 28일 경기 강원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20여곳의 사찰과 군법당이 침수 또는 유실되는등 불교계 피해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자들은 동체대비의 실현을 위해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복구현장에서 오물청소 급식 무료진료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보살행을 펼치고 있어 수해현장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지난 7월29일 문화사회부에 수해복구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사회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은 지난 31일 자원봉사센타를 경기도 문산과 연천에 개설하고, 급식 피해가정오물제거 거리청소 세탁 한방무료진료 등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복지재단의 자원봉사단은 봉선사 용주사 수국사 도선사 봉은정사 등 10여개 사찰과 곰두리차량봉사단 우리는선우 자비의집 월곡독서실 삼전·구로·청담복지관 등의 단체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돼, 하루 평균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7월30, 31일 양일간 연천 파주를 위로방문, 1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수재의연금 2천만원을 KBS에 전달했다. 또한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 9일 1천만원의 수재의연금과 구호물품을 파주시청에,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7월29일 1천5백만원을 불교방송에, 진각종(통리원장 탁혜)은 지난 3일 1천만원을 KBS에, 총지종은 7월31일 5백만원을 불교TV에 각각 전달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폭우로 순직한 장병들의 영령을 위로하기위해 오는 14일 3시 봉선사 청평루에서 천도재를 봉행한다.

피해상황 불교계 피해는 봉선사 도피안사 강화 선원사 5사단 15사단등 사찰 군법당 20여곳이 침수 또는 산사태등으로 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운경)는 논 2천여평이 매몰되고 절 입구의 다리가 무너졌으며, 소속말사 15곳의 법당 및 진입로가 유실되는 등 4억원의 피해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 도피안사(주지 도경)는 산사태로 법당 기와가 부서지고, 사찰입구 다리가 끊어졌다. 강화선원사(주지 성원)도 대웅전 복원불사 현장이 완전침수, 법당과 4천여평의 논밭 등이 침수 또는 붕괴되는 등 수마의 상처가 깊게 패였다. 군법당 피해도 컸는데 강원도 5사단 통일사(법사 이종인)는 신병교육대 법당이 완전 붕괴되고, 15사단 천불사(법사 문병렬)의 경우 요사채 지반이 1/3정도 패이고 법당과 요사채를 잇는 다리와 둑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번 군지역 폭우로 순직한 80여명의 장병중 30여명이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 나를 알면 우주가 보인다

우주는 나로부터 벗어졌으니 나를 알면 삼천대천세계를 압니다. 내가 대천세계이고 대천세계가 나니까 새삼스레 안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로 보고 대상을 대상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앰프 스피커 마이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표등록 제135828호 외장등록 제413883호 스튜어트 Stuart®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기기선정 및 구입방법, 앰프 공사를 위한 마이크및 스피커 코드의 바른 배선법 등을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지금 전화 하십시오

법당의 필수품



설법,염불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하고 싶은 스님들께 꼭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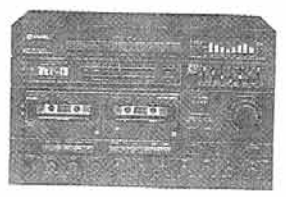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보다 멀리서 잘 들어갑니다

●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 공급가 : 180,000

●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 공급가: 85,000



●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밧데리 겸용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240W출력, 마이크6
스피커 10회로
더블 카셋트 데크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용도: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 고성능 무선 마이크

영등포전시판매장
영등포 유통상가 지하 1층 다열 18, 19호
☎(02)671-9356~7

유 코 전 자
본사: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TEL:697-9976, 605-3235 FAX:(02)695-9676

건강백세 ⑳

어깨(肩)

어깨는 팔과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쇄골(鎖骨) 견갑골(肩甲骨)과 상박골(上膊骨)등 세개의 뼈들이 만나는 관절이다. 전후좌우는 물론 회전까지 할수 있는 도리깨관절이다. 생활속에서 노동



과 운동을 하는데 중요하게 관여한다. 단순히 연결만되어 있는것이 아니다. 뇌중추의 명령을 받아 적절하게 힘을 조절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중심점이 된다.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을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부위중 하나이다. 최근 오십견(五十肩)이나 다른 여러가지 원인으로 어깨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치마끈을 둘러매지 못하거나 아이를 업어주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오십대쯤 되면 평생토록 사용하여 온 데서 기인한 퇴행성(退行性)의 변화가 현저해지며 특히 여성들은 폐경기를 전후해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저하되어 골다공증(骨多孔症)이나 연골약화로 인한 관절질환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다.

어깨의 통증은 어깨관절 자체의 탈구(脫臼)나 장시간 무리한 사용에서 야기되는 퇴행성변화의 경우에는 촉진(觸診)이나 엑스레이 진단으로 확진될 수 있다. 그러나 어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과로, 타박, 충격등으로 어혈(瘀血)이나 염증이 생겨 발생하기도 하며 경추(頸椎) 디스크 탈출로 인한 경우와 혼동되는 수가 있으므로 정밀진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어깨주위의 근육이 한·냉·습 등의 외기에 과다노출되면 주변조직의 기혈순환이 장애를 받아 어혈이나 담음정체를 일으켜 경락소통(經絡疏通)이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한생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이 잘 될수있는 약물, 침구용법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선풍기나 에어콘 등에 장시간 직접 노출되지 않게 보온에 유의하고 과로를 피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견통예방의 최선책이라고 보겠다. 전화기를 목과 어깨 사이에 끼고서 2~3

"오십견·골다공증등 퇴행성
정밀진단후 예방 대책을"

에어콘등에 장시간 노출금지
온찜질 오히려 근육염 악화

분이상 통화하거나 침대에서 팔베게를 하거나 한쪽어깨를 내려뜨리고 잠을 자는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볍게 주무르거나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연고등을 발라 맛사지해 주는것은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만 아픈부위를 강하게 때리거나 뜨거운 찜질 하는것 등은 오히려 근육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어깨관절안에 직접 약물을 투입하여 속효를 보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부신피질호르몬제 일종의 관절충전제로 퇴행성관절염등에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겠으나 부작용 내지는 한번 주입된 약물은 일종의 이물질로서 제거 할수 없는 어려운점도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하며 역시 예방이 중요하고 치료는 시일이 요구 되어도 근육이나 관절의 염증상태를 제거하는 등 원인해소에 치중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겠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양수리의 법당 ①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가 지금 20년전의 나 일 수 없듯 20년전의 나도 오늘의 나를 상상하지 못했다. 다만 그때의 나는 불행했고 지금의 나는 그 불행을 잊고 있다는 차이가 세월의 두께로 남아 있을 뿐이다.

나는 가정주부였다. 아침이면 남편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를 돕고 집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하고 이웃 아낙들과 연속극 얘기를 나누고 낮잠도 자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마흔고개에 올라선 여자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사업에 바쁜 남편의 아내로 나는 일인다역 배우처럼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친구들과 얘기하곤 했었다. 그러나 그 재미난 다역배우의 생활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나는 내 삶의 행복에 안주하며 죽음을 심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란 단어가 나의 삶에 날벼락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남편은 쓰러진지 한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버렸다. 영안실에 얼드린 나는 몇번이고 혼절을 했었다. 내 귀에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들려 오는데 나는 그게 나의 것이란 생각을 못했다.

남편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두아이의 엄마로 단란했던 생활에 날벼락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반은 남의 정신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뤘지만 내게 남편의 죽음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이었다. 오후 일곱시면 대문을 열어 두고 남편의 차가 마당 깊숙히 들어 오도록 했지만 허사였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그렇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짐이 큰 현실. 그 속에서 나는 중3이었던 아들 보다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딸 아이 보다 더 어려진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친정 식구들은 내가 정신병을 얻을까 걱정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며 제발 진정하고 아이들과 살 궁리를 하라고 야단이었다. 남편의 가게(자동차 부속품을 취급하는 제법 큰 가게였다)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한 집안 식구처럼 지냈던 박부장도 "이제 사모님이 사장이 되셔서 가게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이런저런 일을 상의해 왔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가 아직은 정리가 안되니까 우선 박부장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만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잘 참아 주었다.

아니 내 눈치를 살피느라 에미에게 쏟아 놓아야할 슬픔의 눈물을 다른 곳에서 쏟고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나의 아픔 속에서만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어느날, 가을이 깊어 있었다. 늘 가까이 지냈던 이웃집의 준이 엄마가 찾아왔다.

"왜 그렇게 눈치를 살피며 들어 오는 거야?"

"눈치는 무슨, 그래 몸은 좀 어때. 이제 기운을 차려야지"

오래 이웃으로 살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나누며 지내온 준이 엄마는 남편의 장례후 자주 찾아 주는 고마운 친구였다. 그녀와 그전처럼 수다를 떨거나 하는 시간은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옆에 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힘이었다.

"우리 오늘 나가 볼까?"

"어딥?"

"그냥 아무데나, 서울을 벗어난 곳에 나가 바람이나 좀 쐬고 오자는 것이지 뭐. 이제 몸이나 마음을 추스려야 할 것 아냐. 애들을 봐서라도 그렇고 가게에도 신경을 써야 먹고 살것 아니겠냐구."

그렇게 떠밀리듯 집을 나선 그날, 나는 인생의 새길을 걷지 않으면 안될 나를 발견했다. 양수리의 높은산 높다란 법당에서였다.

정 보 리 심
(서울 성북구 성북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㊶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두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 And let him cultivate goodwill towards all the world, a boundless friendly mind, above and below and across, unobstructed, without hatred, without enmity.

또한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 may 권유 조동사 (~하여라)
* creature (n)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창조물
* devote (v) 속하다, 기인하다
* despise (v) 경멸하다, 깔보다
* resentment (n) 원한, 분노
* bound (a) 한계, 경계선 (~less, 한량없는)
* across 옆으로, 가로질러
* obstruct (v) 막다, 장애물을 놓다 (un~, 가로막지 않는, 장애물이 없는)
* hatred (n) 증오, 미움 (=enmity)

오중욱 기자

♦ Either seen or which are not seen, and which live far (or) near, either born or seeking birth, may all creatures be happy-minded.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 Let no one deceive another, let him not despise (another) in any place, let him not out of anger or resentment wish harm to another.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

♦ As a mother at the risk of her life watches over her own child, her only child, so also let every one cultivate a boundless (friendly) mind towards all beings.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히말라야의 새 ②
부디야드 카플링 作

라마승과 킴은 밤이 끝날무렵 기차역에 도착했다. 거대한 양의 북부지역 곡물운송을 취급하는 역구내는 시끌벅적했다. 라마승은 열차에 익숙치 못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차표를 사들고 온 킴은 노승과 기차에 올랐고 삼등칸 안은 몹시 복잡했다.

기차가 달리는 도중 라마승과 킴은 주위 사람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 가운데 이들의 여행 목적인 신비의 강과 붉은 황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기차는 오후가 되어 움발라에 도착 했고 킴 일행은 기차에서 만난 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다. 킴은 무엇보다 영국인 장교에게 전해야할 문서가 있었기에 움발라에서 묵지 않을 수 없었다. 마흐붑 알리의 지령은 정확해서 쉽게 장교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킴은 장교의 저택으로 은밀히 잠입해 마흐붑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성공 했다. 물론 수고비 1루베도 챙겼다.

킴은 전달할 물건이 전달된 뒤에도 그 장교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 문서로 인해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됐다. 장교의 말을 엿들은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될걸세. 하지만 우리가 즉각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정당성이 있는 그런 경우야. 린디 여단과 크샤우르 여단에 통고하게. 여름철부대 교체 이동에 혼란이 일겠지만 어쩔 수 없어. 최초의 일격에 그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돼. 8천명이면 충분하다고 전하게"

그날밤 킴은 라마승과 함께 묵게 된 농부의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다. 농부의 집안 성직자인 한 바라문은 킴의 출생 일시와 천궁도를 맞춰 보더니 "네가 찾는 황소의 점괘는 무잠한 군인과 전쟁의 징후구나"라는 말을 했다. 또 "네 별자리는 곧 닥쳐올 불그스레하고 성난 궁도(宮圖)야"라는 확신에 찬 말도 했다.

"우린 오직 평화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강을 찾고 있습니다"

라마승은 그럴리가 없다고 거듭 거듭 부정했지만 킴은 그 장교의 집에서 엿들은 말을 생각하며 혼자 웃었다.

다음날 아침 더 머물라는 권유를 뒤로하고 노승과 킴은 길을 떠났다. 하루를 걸어 그들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다시 밤을 맞아 쉬었다.

"네가 찾는 황소는 전쟁의 징후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킴과 라마승은 바라나시를 지나고 펀커타까지 이어지는 대간선도로를 주축으로 여행하기로 이정표를 잡았다.

그 무덥고 지리한 도보여행 길에서 킴의 일행은 한 부유한 부인의 일행과 동행이 됐다. 물론 그 부인이 라마승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까닭에서 였다. 그녀는 그녀와 가족의 평안을 축원해 달라고 노승에게 당부하며 자신의 불심을 은근히 자랑하는 재미도 즐기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여행은 그러나 오래지 않았다. 아니 킴은 그 여행에서 길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 때문이었다.



그림 · 심민섭

생활속의 불교 ㉞

손에 나침반을 쥐고 갈 길을 묻는다면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출세 지향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은연중 최고를 지향하고 웅대(雄大)한 것을 선호하는 습성에 젖어 버렸다. 뜻은 클수록 좋고 목표는 높을수록 좋고 성과는 장대할수록, 과실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지배받으며 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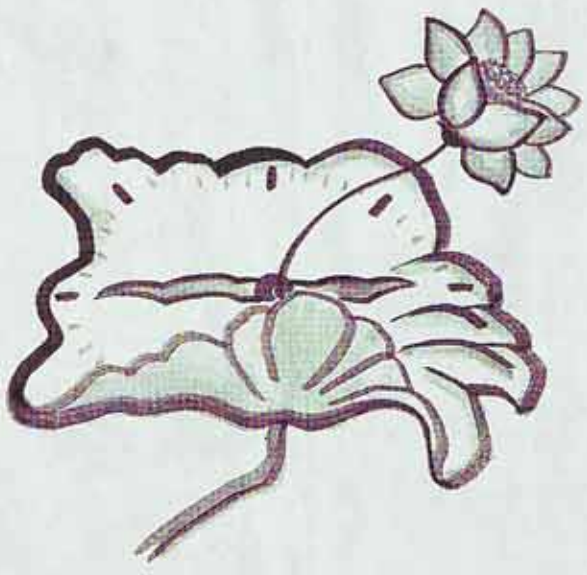
뜻을 세움은 보람 있는 인생의 출발조건이자 삶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 된다. 입지(立志)가 분명치 않은 삶, 그야말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삶보다는 뜻을 세운 삶이 한결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왕 뜻을 세울 바에는 뜻을 크게, 목표는 높게 잡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뜻이 크면 큰 만큼 마음은 부대끼고 목표가 높으면 높은 만큼 노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고로 선인들은 하나같이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 분수를 지키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또 하나의 충고로 들려 주고 있다. 과욕이 곧 일을 망치고 몸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 근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어떤 뜻을 세우느냐는 그 내용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다.

뜻을 세우되 참답게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되 실답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웠다고 다 뜻이 아니요, 설정했다고 다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중엔 망상(妄想)과 몽상(夢想)도 있다. 꿈 같은 생각으로 세운 뜻과 목표는 한낱 꼭두각시 놀음에 그치고 만다.



참다운 뜻은 과연 뭔가.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운 뜻과 목표는 그 무엇이라도 실답지 못하다. 뜻을 세운 주체가 애매모호하고서야 그 뜻이 참다울 수는 없다.

고로 먼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가를 참구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뜻 세움(立志)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느 천년에 그것을 알고 나서 비로소 뜻을 세운다 하겠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고상한 뜻이라 해도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워본들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신기루일 뿐이다. 고로 나를 알고 발견하는 것, 거기에 뜻을 두는 게 참다운 입지이다. 나를 알면 남도 알아지고 세계도 알아지니 비로소 그 뜻은 눈부시지 않겠는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뜻만 세우면 길은 훤히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진작에 부처님께서 그 길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 놓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나무가 실다우면 과일도 실답다. 뜻이 참되고 실천이 바르다면 결과는 분명하다. 좋고도 좋을시고! 노래가 절로 나올 결과가 따르게 된다.

세속의 입지나 목표 따위는 그에 비하면 화덕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담보하신 것이다. 뜻을 세움에 비록 처음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끝은 아름답고 평안하고 크다고 하셨다.

요는 실천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진작에 나침반을 쥐어 주셨으니 그에 따라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뜻은 절로 크고 목표는 절로 높으리라.

협 찬 : 김 덕 기